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연방하원 공식 출마선언 안했지만 대니얼 고 한달 만에 80만불 모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사실상 연방하원에 출마한 대니얼 고(32)가 출마 준비위원회를 꾸린 지 한달 만에 무려 \$8005,000을 모금해 그의 강력한 경쟁력을 과시했다. 정식 출마선언 전 이 정도의 금액을 모은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대니얼 고

대니얼 고 선거캠프 카일 설리번 대변인은 4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대니얼 고가 연방 선거위원회에 연방의회 출마 준비위원회 선거자금 모금 신고를 접수한지 1달만에 \$805,000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대니얼 고는 “제 3지역구 연방하원의원 출마가능성 타진을 선언한 후 한달만에 받은 열렬한 지지에 겸허하게 감사드린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대니얼 고는 자신이 선거

대니얼 고, 열렬한 지지에 겸허하게 감사  
보스톤글로브, 강력한 후보 층으로 부상  
정치컨설턴트, 광범위한 지지 확인한 셈

캠페인에 5만불을 직접 출연했다. 이번 선거자금 모금에는 시민협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에서도 7천여불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공식 3분기 선거자금 보고일인 10월 15일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엄청난 금액의 선거자금을 모은 것은 대니얼 고를 현재 후보중 가장 강력한 후보중의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 평가했다.

보스톤글로브는 대니얼 고의 기

금모금 상황을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현재 하원의원으로 대통령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시드 몰튼의원의 과거 상황과 비교했다. 몰튼은 2013년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존 티어니 의원에 대해 예비선거에서 도전했으며 9월 한달동안 \$300,000을 모았었다. 몰튼은 3개의 하버드 학위를 비롯 해병대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아주 부유한 계층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2012년 연방하원에 도전한 조 케

네디 3세는 유명한 정치가문 케네디가의 적손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 한 달만에 \$500,000를 모금 했었다.

각 개인은 한 후보에게 한 선거당 최대 \$2,700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예비선거 본선거를 합해 최대 \$5,400까지 기부할 수 있다. 현재 대니얼 고 캠프가 모금한 \$805,000은 단지 예비선거를 대비해 모은 금액이다.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 제시 퍼거슨은 “초기 정치자금모금 성공은 내년 선거 광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임과 동시에 이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광범위한 지지그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2면으로 계속



## 매사추세츠 주정부 첫 한국의 날 선포

주지사 10월 26일 한국의 날로 공포  
시민협회 주청사에서 한국의 날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제정하는 한국의 날 행사가 10월 26일 목요일 개최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국의 날’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시민협회의 요청을 받아 10월 26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한다. 이날 주청사 그레이트 홀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는 시민협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보스톤 총영사관이 후원해 개최된다.

한국의 날은 보스톤시가 보스톤 한인회와 함께 2015년, 2016년 한국의 개천절인 10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출발  
**한국행항공권 \$870~**부터

미서부관광 포세타티/샌프란시스코 4박5일 \$465~	미서부3대개봉 4박5일 \$470~	고국관광 서남권 3박4일 \$609~	충동만 3박4일 \$609~
미동부관광 워싱턴 / 나이아가라 리뉴욕시대 4박5일 \$680~	미동부&캐나다 4박5일 \$800~	선국일주 8박9일 시애틀, 로키산, 밴쿠버 \$1,388~	

IACE TRAVEL 부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tvN, OCN, Olive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사실상 연방하원에 출마한 대니얼 고(32)가 출마 준비위원회를 꾸리던 한달 만에 무려 \$800,000을 모금해 그의 강력한 경쟁력을 과시했다

## 공식출마 선언 안한 대니얼 고 한달만에 80만불 모금

▶▶1면에 이어서  
증거” 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고는 8월 31일까지 마티 월시 보스턴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앤도버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을 졸업했으며 허핑턴 포스트 재직시 사주인 아리아나 허핑턴과 밀접하게 지냈다. 또한 시장 비서실장 재직시에는 보스턴의 재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대니얼 고가 출마할 제 3지역구는 해버힐, 앤도버, 로렌스, 로웰 등을 비롯해

서쪽으로는 윈첸든까지이며 남쪽으로는 말보로 허드슨까지 포함된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며 현재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주 상원 바바라 엘탈리언의원, 그리고 일레인 도노휴 의원, 나담 메이즌 케임브리지 시의원 전 마틴 미한 보좌관 로리 트래헨 등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자동차 부품회사 출신인 부호 릭 그린리 출마를 발표했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주정부 첫 한국의 날 선포

▶▶1면에 이어서  
월 3일로 지정해 기념했다. 그러나 보스턴 한인회장이 공식인 상태에서 한인회가 공중분해 되면서 올해는 슬며시 지나가 버렸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을 도와 이번 한국의 날 준비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한 태키 찬 주하원의원을 비롯해 노널드 워, 래디 맘, 게이코 오렐, 폴 슈미드 의원까지 아시아계 주하원의원이 모두 참여한다.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과 드보라 골드버그재무부 장관도 참가한다.

주청사 그레이트 홀에서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이경해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엄성준 총영사의 축사,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의 축사, 태키찬등 아시아계 의원들의 축사에 이어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대니얼 고도 이날 참가해 아시아계 의원들과 함께 축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축사 후에는 부페로 마련된 한식 오찬이 준비되며 한국의 전통 부채춤/가야금 연주 공연도 이뤄진다.

이경해 회장은 “한인 여러분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청사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한인의 위상을 미주류사회에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장소: GREAT HALL, MASSACHUSETTS STATE HOUSE

24 Beacon Street

Boston MA 02133

일시: 2017년 10월 26일 (목)

오전 11시 30 ~ 오후 2시

hsb@bostonkorea.com

## 사고 (社告)

### 허리케인 수재민을 돕읍시다

보스턴코리아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들어닥친 허리케인 인한 피해자들을 돕고자 모금운동을 10월 8일까지 연장합니다.

소중한 정성을 보스턴코리아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성금은 체크로 보내주시고 지불은 American Red Cross로 작성해 주세

요. 보스턴코리아는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하나 적십자사에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보스턴코리아

주소: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Payable to: American Red Cross

기부금 보내주신 분 (총액 \$2,445)

가든하우스, 이병철, 리베카 유, 문수사, 박현아, 정한웅,

최성우, 보스턴코리아, 뉴햄프셔 한인회, 김준철, 마스터허태권도, 우스터 한인장로교회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개관식 갖고 출범

9월 29일 각계 인사 참여 축하 한인회관 및 문화관 용도 사용 37년만의 결실 오랜숙원 풀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한인회관 개관식이 9월 29일 금요일 11시 크랜스턴 소재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엄성준 총영사, 조은경 NH한인회장, 이경해 시민협회장, 윤미자 평통회장 등의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앨런 평 크랜스턴 시장, 짐 랭지빈 연방하원의원 그리고 에릭 아칸드 잭 리드 연방상원 보좌관 등 미국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축하를 전했다.

개관을 상징하는 리본 커팅에는 조봉섭 RI 한인회장, 이동수 건물위원장, 박근찬 이사장, 옥동석 노인회장, 윤과 옥 경제인협회장, 김희몽 한인학교장, 이원중 3대회장, 고일석 6대회장 등과 평시장, 랭지빈 의원, 아칸드 보좌관이 참여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로드아일랜드 크랜스턴(Cranston, RI) 1140 Park Avenue 건물을 \$195,000에 구입했다. 계약은 7월 7일 완료됐다. 이 건물은 앞으로 한인회관 및 문화관 용도로 사용



(좌측부터)서미경, 윤광옥, 김희몽 한인학교 교장, 박근찬 이사장, Veteran Mel Hill, 이동수 건물위원장, Mayor Allan Fung, 조봉섭 회장, Congressman Jim Langevin, 엄성준 총영사, 고일석 전회장, 옥동석 노인회 회장, 이원중 전회장, Suzanne Sharkey (사진=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엄성준 총영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된다. 당초 5월 30일에 계약을 만료할 예정이었지만 빌딩코드(Building Code) 문제가 발견돼 이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졌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건물 구입도 당초 \$205,000보다 1만불 저렴하게 구입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1981년 한인회관 건립기금 정관을 설정하고 모금액 \$1,000로 모금운동을 시작해 37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개관식까지 3달 가까이 동안 건물위원회 이동수, 이종민, 박근찬, 모니카리, 지상욱, 조원경, 조봉섭 7명의 위원과 윤광옥, 스티브 사키, 제리, 서미경, 수잔 사키, 강순, 정석훈, 흥치선, 노난실, 정유민, 조미연, 오정희 등이 개관식 도 우미 역할을 했다.

회관 마련은 37년 전에 의기 투합하여 시작한 원로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분들의 차세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우리들의 차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로드 아일랜드 조봉섭 회장은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 한인들의 한인회관/문화관에 대한 열정어린 오랜 숙원이고, 한 마음이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회관 곳곳에 남겨진 회원들의 손길은 한인회가 나아갈 앞날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회관은 과거, 현재와 미래의 한인회가 어울려 같이 나아갈 우리들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 NE 성대 동문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성균관대학 동문회가 9월 30일 토요일 노스 앤드 버 소재 김성군 회장 자택에서 동문회 모임을 가졌다.

김성군 회장은 “당초 계획됐던 부부동반 골프대회는 우천으로 취소되었지만 푸짐하고 긴 바비큐 저녁 만찬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고 밝혔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한국에서 날로 발전하는 위상과 캠퍼스 소식을 나누고 건학 619년의 “인의예지”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성균관인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NE 보스톤 성대동문회에 대한 문의는 김성군 회장 (이메일: info@songkkimlaw.com 전화: 781-438-6170)으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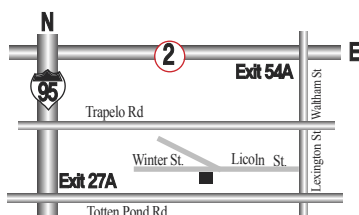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2017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9, 2017

Class	Time
PSAT/SAT I Prep 9/9/17 open	9:00 AM – 11:00 AM 11th Grade
PSAT Prep 9/9/17 – 3/3/18	1:00 PM – 3:00 PM 9th/10th Grade
SAT I Prep 9/9/17 – 11/25/17 (as needed)	3:30 PM – 5:30 PM 12th Grade
SAT II Prep 9/9/17 – 11/25/17	6:00 PM – 8:00 PM Subject Tests 10th/11th/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워크샵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치대에 관심 있는 치대 준비생이나 포스트백(post-baccalaureate) 과정 중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치대 진학 준비생 위한 워크샵 개최

10월 21일 토요일 미니 덴탈 스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치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치대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등을 안내하는 워크샵 '미니덴탈스쿨' 이 개최된다.

덴티스트포휴머니티 (Dentists for Humanity, 이하 D4H)는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케임브리지 소재 인만 스트리트 126번지 (126 Inman St, Cambridge) 에서 치대 준비생을 위한 프리덴탈 (Pre-Dental) 워크샵 '미니덴탈스쿨' 을 개최한다.

보스톤대학(BU), 텡스대학(Tufts Univ.),

하버드대학(Harvard Univ.)의 치대생들과 보스톤 지역의 치과 전문의들이 참여해 장래 덴티스트를 지망하는 준비생들에게 치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워크샵을 통해 치대 과정을 미리 엿볼 수 있으며 치대 지원과정, 인터뷰 요령, 입학시험(DAT)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워크샵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치대에 관심 있는 치대 준비생이나 포스트백(post-baccalaureate) 과정 중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샵 참가 신청은 D4H 웹사이트 (<http://www.dentistsforhumanity.org>)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샵의 참가비는 \$100이며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D4H가 참여하는 아이티 클리닉 후원 등 다양한 국내의 봉사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덴티스트포휴머니티는 칠드런스 호스피탈(Children's Hospital) 소속 김수우 교수(하버드 치의대)가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보스톤 지역 치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에는 1주일간 아이티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일정

일시: 2016년 10월 21일 토요일  
오전8시~오후 5시

장소: 126 Inman St, Cambridge MA 02139  
hsb@bostonkorea.com

## 유아기 애착과 뇌발달에 관한 세미나 개최

뉴잉글랜드 간호사협회 주최 정신과 전문의 강연 유아기 애착과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가 정신과 강철민 전문의를 초청해 유아기의 애착과 스트레스가 뇌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알아보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아기의 애착과 스트레스가 건강한 발달과 비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11시 40분부터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개최된다. 강연후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뉴잉글랜드한인간호사협회는 유아기 애착 유형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학습 및 정서발달 문제를 유발하며 성인이 된 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 자녀들의 부모, 자녀를 계획중인 부부, 예비 부부 등 관심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를 박형옥(781.250.9110)씨에게 할 수 있다.

강철민 강사는 1999년 서울 백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2017년에는 보스톤정신분석연구소 펠로우십과정을 수료했다.

날짜: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11:40 - 12:30, 강의 후 Q&A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부모실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리장 정품은 정리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갱년기 여성건강  
[원활한 신체 생리 조절]

면역력 증진  
[환경호르몬 장애 예방]

항산화 작용  
[노화억제]

피로 개선  
[기력회복]  
[정력개선]

기억력 개선  
[주의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 합병증 예방]

**홍삼 6대기능**  
[식약처 인정]

**가을맞이 특별 프로모션 10월 15일 까지**

**행사 1**

**FREE** 홍삼정 120g 2개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240g 과 가격과 용량은 같지만  
120g 두개여도 적용됩니다.

**행사 2**

**FREE** 홍삼정차 마일드 (50팩 / \$35)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권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 플리머스 작은 마을 축제 파고든 김치

축제 시작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 로컬 맥주 메이플라워, 김치 맥주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플리머스 지역의 작은 마을 축제에 김치가 양념처럼 곁들여 졌다.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맥주 제조업체 메이플라워가 빛은 맥주와 함께 플리머스 주민들은 김치를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음식처럼 즐겼다.

9월 29일 밤 보스톤에서 남쪽으로 약 40분가량 달려야 만나는 곳이 플리머스다. 지역 맥주 제조업체인 메이플라워 양조공장에서 열린 이 축제는 보스톤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임옥 씨와 폴라 마르코 씨의 김치 담그는 법 시연으로 시작했다.

임옥 씨 부부와 이경아, 안순지 씨 등은 김치와 밥을 김으로 말아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빈대떡을 곁들일 수 있도록 했다. 전라도 김치 감칠맛의 매력은 주민들을 끌어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없이 와서 맛보고 즐겼고 일부 김치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빈대떡을 선택했다.

메이플라워는 특별히 한국 김치의 맛을 기념하는 스파이시 맥주를 특별히 제조해 팔기도 했다.

맥주양조장 맥주 저장창고에 무대를 만든 밴드 딩히스(the Dinghys)의 연



김치 담그는 법을 시연하고 있는 임옥 씨와 음식 역사가(food historian) 폴라 마르코(Paula Marcoux)



축제의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관객들 (사진=이경아)

주와 함께 참가자들은 맥주 그리고 여러 가지 마련된 음식들을 먹으며 음악 또는 춤을 즐겼다. 등장한 음식은 빵과 소스, 치즈, 고기버거, 갓 구운 장작 피자 등 다양했다.

문화 매거진 에더블 사우스쇼어 사우스 코스트가 마련한 이 가을 축제는 플리머스 지역에서 생산한 각종 채소

등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음식이 등장했다.

플리머스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처음 발을 딛은 곳이다. 플리머스 사람들에게 김치는 어느덧 그들의 음식의 하나였던 것처럼 사랑받았다.

editor@bostonkorea.com

# 단풍 시즌 앞둔 화이트 마운틴 산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단풍 드라이브 시작을 알리는 콜럼버스데이를 앞두고 단풍의 명소 화이트 마운틴에 산불이 발생해 하루 이상 지속되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첫 산불은 우드스탁에서 운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럼버스데이는 단풍 드라이브 시작을 알리는 시즌이다.

산불은 10월 3일 새벽 6시 15분에 발발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재 킨스맨 산마루(Kinsman Ridge)와 로스트리버협곡(Lost River Gorge) 인근 50에이커 정도 규모를 태우고 있다고 뉴햄프셔주 소방대장인 맥케이 소장은 밝혔다.

맥케이 소장은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상당히 경사가 높고 절벽

이 많아 진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맥케이 소장은 “아주 대형 산불은 아니지만 높이와 높은 경사로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고 밝혔다.

3일 아침 현재 약 2대의 헬리콥터와 50여 명 이상의 소방관에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다. 로스트리버고지는 현재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정이지만 한 운전자에 따르면 운석을 보았으며 이후 불길의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운석으로 바뀌며 불타게 된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5일 현재 산불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단풍의 명소 화이트 마운틴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헬리콥터(사진=뉴햄프셔 우드스탁 소방서)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평통, 강한 안보 이미지 순화 평화 지향한다”

## 윤미자 18기 보스톤 평통회장과 솔직한 대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평통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보스톤사회의 중요한 단체로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보스톤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통 회장은 어떤 의미에서 한인회 장자리보다 섹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는 회장 지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 협의회가 윤미자 회장 체제로 시작했습니다. 윤미자 회장은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물결을 타고 새롭게 등장한 보스톤 평통사상 두번째 여성 회장입니다. 19기 평통회장을 내심 기대해 왔던 분들에게서는 모두 의외의 인물이 회장이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일부에서는 ‘1만불 기부설’ 이 나오는 등 흥흥한 소문도 있었기에 윤미자 회장의 ‘말’ 이 어느 때보다 더 기대 됐습니다. 2일 저녁 울스턴 하버드 에비뉴 ‘오피스’ 에서 윤미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전임 한선우 회장, 황우성 간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때론 간단한 취기는 솔직함을 들어 내기에 때론 취중 토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형식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로 평통 회장으로서 19기 평통 출범식에 앞서 소감, 그리고 평통회장의 운영 방향, 회장이 된 경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풀어냈습니다.

윤미자 회장은 한국에서 돌아온 후 19일 출범식 준비와 각종 업무 파악으로 눈코 뜰새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실적 육체적 두가지로 분주했어서 무려 2KG이나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평통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3대째 간사역할을 하며 평통의 실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황우

성 간사가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회장이 녹음은 부담스럽다 해서 중간에 녹취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답변은 윤 회장의 정확한 말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통 회장으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예상은 하고 계셨나요? 당시 한국에 계셨을 때인데요.

윤: 아니요.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여기 저기 전화를 해서 사양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평통 사무처와 통화를 해서 고사를 했더니 특히 보스톤 지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며 꼭 이끌어달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1만불설 같은 것은 왜 나왔을까요?

윤: 저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단지 지난 18기 평통 때 통일안보 비전대회와 통일골든벨 행사를 제가 맡아서 진행했는데 아마 이런 측면이 평통 사무처에 좋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한: 제가 윤미자 수석 부회장에게 행사 전반을 위임해서 진행토록 했습니다. 많은 한인단체들은 차기와 후대를 키우지 않아 단절되곤 했기에 저는 임원진이 책임을 지고 진행토록해 경험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평통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한선우 회장의 지지로 윤회장이 지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평통회장으로서 내년 운영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윤: 과거와는 달리 안보 위주보다는 평화와 한미 공조가 주를 이루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인들에



윤미자 18기 보스톤 평통회장

게 통일과 평화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비전대회, 통일골든벨 등의 기존 행사 외에 많은 강연회와 통일음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 평통은 좀 더 투명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평통은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평통이 태극기 집회처럼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화를 강조합니다. 평통의 간사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평통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의 조평통의 대응 세력으로서의 평통은 한미 공조와 평화를 지향해달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평통회장 이후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윤: 아무래도 평통위원들 각자의 견해표출에 대한 대응입니다. 또한 카톡방이 민주평통 전체 방, 평통회장단 방, 그리고 보스톤민주평통 방이 있는데 순식간 100여개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외에 보스톤 평통 출범식 및 각종 평통 행사에 대한 계획, 기타 행사 참여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업이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editor@bostonkorea.com

## 평통 보스톤지역 협의회 출범식 19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 협의회(이하 보스톤 평통)가 19일 목요일 저녁 6시 내틱 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18기 평통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덕룡 민주평통수석부회장이 참가한다.

윤미자 회장 체제내에서 출범하는 이번 보스톤 평통은 현재 총 42명의 평통위원이 위촉되었으며 황우성 전 간사가 올해도 3대째 간사를 맡아 각종 실무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임원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음은 18기 평통위원 명단이다. 강창남, 김성혁, 김숙자, 김우혁, 김현주, 김희순, 남궁연, 남성한, 박선우, 박승삼, 박정연, 박진영, 브라이언리, 손문식, 오정희, 유현경, 윤미자, 이강원, 이강원, 이무선, 이은



주, 이재영, 이제봉, 이평원, 이현경, 임옥, 장수인, 장우석, 장진섭, 장혜선, 전좌근, 조은구, 조원경, 조은경, 최지영, 한근수, 한선우, 한순용, 한윤영, 함해란, 황길남, 황우성  
bostonkorean@hotmail.com

## 2017년 보스톤 산악회 바비큐 단풍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10월 14일 토요일 블루힐 스카이랜드 트레일에서 단풍산행 및 바비큐 행사를 갖는다.

산악회 김상호 회장은 “단풍철을 맞아 보스톤 시내에 가깝고도 비교적 쉬운 블루힐에서 등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산행에는 등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이며 아동은 무료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11일 수

요일까지 김혁신씨(617-780-9588)에게 참가의사를 전화 또는 문자로 밝히면 된다. 참가자들은 14일 8시 30분까지 밀튼 소재 블루힐 Houghton Pond 주차장에 집결할 수 있으며 라이드가 필요한 경우 울스턴 공영주차장으로 오전 8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준비물은 등산복장, 등산화 혹은 트랙킹 슈즈, 물 등이다. 집결후 9시부터 12시까지 산행을 하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바비큐 점심시간을 갖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짜라시 토크 3



# 이거 실화냐?

보스톤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 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협찬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후원사 협찬을 통해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페이지를 후원해주실 협찬 식당을 찾습니다. \$20상품권 1개를 격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 협찬 식당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주)

깜 차내자녀방치 판사부부 보스톤서도 불법일까?

기자 1= 깜에서 체포된 한인 판사부부가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앤장의 변호사 윤 씨와 수원지법 판사 설 씨가 10월 2일 6살짜리와 1살짜리 아이를 차에 두고 K마트에서 30분 이상 쇼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911에 신고해 이들이 출동해 아이들을 구출했고 부부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특히 설 씨가 3분만 왔다고 했던 거짓말도 화제가 됐습니다.

기자 2=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을 차에 두는 것을 분명하게 법령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주는 총 19개 주입니다. 주마다 해당 연령 불법 규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보스톤이 속한 매사추세츠 주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규정은 단지 데이케어 센터의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은 차에 아이들을 둘 수 없습니다. 주 법원은 차에 아이들을 두는 것이 주법 119장 39조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설 씨 부부가 보스톤에서 쇼핑을 했더라면 그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 12세 이하의 아이를 차에 일정시간 두어 건강상의 위해를 가했을 경우 500불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 1= 비록 보스톤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들만을 차에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극히 위험합니다. 윤 변호사 내외는 유죄를 인정하고 2천불의 벌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한 것이 다행입니다.

기자 3= 아이들을 차에 두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집에 두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 이것도 역시 주법 119장 39조 유기 및 태만에 대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구체적으로 나이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유기 경우 10세 이하에 적용되며 태만은 구체적인 연령 명시가 없습니다. 유기와 태만은 꼭 집안과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만을 집에 두어 위해가 가해질 경우에는 불법이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브로드웨이 로터리 추첨  
기자 3= 지난 주말 뉴욕을 또 갔습니다. 뉴욕을 갈 때마다 브로드웨이 로터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당첨이 됐습니다. 캐츠 공연이 당첨



이 됐는데 보는 것은 포기 했습니다. 할인 폭이 그리 크지 않았고 또 공연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해밀턴을 노렸던 것인데 요즘 해밀턴은 로터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1= 브로드웨이 로터리는 공연 2시간 전에 직접 공연장으로 가서 해야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하나보죠. 그런데 해밀턴은 최근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해밀턴에 나오는 오프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우니까요.

기자 3= 디지털 세대입니다. TodayTix란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보통 참가 공연들은 자정에 발표되는데 공연 4시간 전에 폰을 통해 로터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공유를 통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브로드웨이쇼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로터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비록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기록은 남아 있어 차후 다른 행사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Playbill.com에서 로터리 정보 또는 러시 티켓 등 다양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자 2= 참고로 해밀턴 공연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달간 보스톤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스톤의 해밀턴 개별 공연 티켓은 아직 판매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 4-5월에는 티켓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밀턴 공연 티켓은 쇼의 관여부와 관계없이 요즘은 재테크가 된 기본입니다. 스타트업 등 2차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해밀턴 공연 티켓을 검색해보시면 금방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키 장비 시즈렌탈, 지금 대여해야 저렴



기자 3= 요즘 골프샵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마도 온라인 골프샵의 활성화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중고 골프용품에 대해서는 각광받는 곳이 글로벌골프닷컴(www.globalgolf.com)입니다.

기자 1= 또다른 중고 온라인 골프샵은 쓰리볼스닷컴(3balls.com)입니다. 10월은 황금골프 시즌입니다. 또한 이젠 겨울 스포츠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9월부터니 특히 5-6세 아이들의 경우 스키, 스노보드 레슨을 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매년 자라기 때문에 스키 렌탈이 가장 저렴한 옵션입니다. 또한 지금 시즈렌탈을 하는 경우 본격적인 시즈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키레슨도 지금 선택해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쇼바 스키레슨, 또는 와쉴렛 스키 및 스노보드레슨, 블루힐 스키레슨 등이 있습니다.

기자 2= 스키레슨의 경우 각 타운의 커뮤니티 행사에 포함되면 일반가격보다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렉싱턴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타운의 평생교육센터에 연락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3= 뉴햄프셔의 한 스키샵에서 시즈 렌탈을 하는 경우 스키장 시즈 이용권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ProctorSki(proctorski.com)에서 주니어 스키, 스노보드렌탈시 브레튼우드스 키장의 시즈패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별링턴의 Ski house, 우번의 Ski&Snowboard Shack 등을 비롯 구글 검색으로 많은 시즈 렌탈 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마리화나 합법화, 한인 학생들 방심하면 큰 대가 치를 수도

합법화 되었지만 술처럼 금지 규정 적용, 한인학생들은 미국법, 한국법 동시 적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다. 합법화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한인학생들은 합법화의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생활에서 늘 부딪히고 있는 것들 즉 음주, 마리화나 등의 법안의 속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을 범법행위에 노출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즉 뜻하지 않는 재산적, 법적 대가를 치르고 나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스톤 대학의 유학생 이 모 씨는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 되었다는 소식만 접하고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며 자세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자주 나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합법이 되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고 전했다.

또한, 같은 대학의 김 모 씨도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봐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도 합법화 되었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인 박 모 씨는 “한인들에게 매사추세츠 주내 마리화나 합법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사실 잘 모른다” 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인 친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고 전했다.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한지 1년이 되 어가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마리화나 합법화 소식에 관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한인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등 자세한 발의안에 대해서는 잘 모



르고 있었다.

다음은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통해 합법이 된 것들과 여전히 불법인 것들,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한 설명이다.

합법인 것은?

-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해당된다.
- 집 밖에서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운반, 구매할 수 있다.

- 개인 용도로 6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1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 성인끼리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줄 수 있지만,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없다.

불법인 것은?

-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허가를 가지지 않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구입, 재배, 사용할 수 없다.

-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것도 법에서 금하고 있다.

-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다.

- 오락용 마리화나는 허가증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판매될 수 없다.

- 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 약물 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차량 운전자 보조석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 마리화나를 집에서 재배할 경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보안시설에서 재배해야 한다.

- 집주인이 금지할 경우 세입자는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흡연할 수 없다.

한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 한국 형법 제 3조 상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저지른 죄도 한국에서 처벌된다.

-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되었지만 한국으로 들어와 적발될 시 마리화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여 무조건 처벌된다.

- 소변 검사, 모발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짧게는 1-2주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도 마리화나 흡연 사실을 알 수 있다.

kbk@bostonkorea.com



## 미국인들이 보는 북핵위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권조이 기자 =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위기에 세계가 고민하게 되었다. 남한은 북한과 제일 가까운 아래 쪽에 있고 서로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이기도 한데도 둘의 역사적 관계는 60년 넘게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은 유일하게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인들 중 일부는 북한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북한핵위험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로 미국민들은 북한이나 김정은을 ‘형설수설 하면서 버릇 없는 아이 같다’ 는 반응을 많이 보여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있었다. 데이빗은 “남북한 양국이 핵으로 전멸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전쟁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재래식 전쟁을 시작해도 오히려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이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과거 북한은 소련의 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핵전쟁은 없었다. 역사를 본다면 결코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엘리아는 “남한은 평화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 북한의 뒤에는 소련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쟁을 계획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 엘리아는 “통일된 남북한을 방문해 한국의 음식도 맛보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차널은 “북한은 헐리우드 필름만 봐도 죽이는 나라라고 들었다”며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자극한다면 전쟁 선언 없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위협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한국을 여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상황에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문제인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거라고 믿는다”이다. 그들은 “현재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트럼프다. 그와 관련된 모든 법들과 외교가 미국을 위한 것 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민할 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떻게 될 것인지와 정말 평화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이다. 긴장은 자주 높아만 가는데 그저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jvlgwon1197@bostonkorea.com

### 마음대로 골라본다

# \$14<sup>99</sup>

KBS2, KBS1, MBC, SBS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55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성 대여 (백일상, 유아)  
장구부터 대장구까지 전통악기, 소중함 내 거기에. 한국의 마음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지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장인이 마음으로 만든 기증자 케이크  
• 국내외 인기업체와 장기, 골기

• 품격있고 우아한 내비게이션  
• 품성만 상차량 세팅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규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 이 지역 요리사들이 추천하는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 5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면 갓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이 식욕을 자극한다. 맛있는 식재료로 직접 맛있는 요리를 지어 먹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남다른 식탁을 차려내는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외식하는 것도 즐거움이다. 보스톤닷컴(Boston.com)은 올 가을 보스톤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될 레스토랑들, 그 중에서도 이 지역 요리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다섯 곳의 레스토랑을 소개했다. 우루과이 타파스, 신선한 베이글, 일본 이자카야 등 다양한 레스토랑이 보스톤을 찾을 예정이다.

## 이븐타이드 (Eventide)

1321 Boylston St., Boston

“이븐타이드 오픈소식에 설렌다. 나는 이븐타이드를 사랑한다. (포틀랜드의) 이븐타이드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샬러리 김렛과 버터 랍스터 롤만 있다면 난 행복하다.” - 클로에 놀란 (CHLOE NOLAN), 베이글 사우루스 (BAGELSAURUS) 베이커 겸 매니저

꽤 많은 요리사들이 포틀랜드의 이븐타이드가 보스톤에 지점을 낸다는 것에 기대를 나타냈다. 음식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는 이 레스토랑은 2016년 겨울부터 보스톤 펜웨이 지점 오픈을 알렸다. 아직 구체적인 오픈 관련 소식은 없으며 이븐타이드 펜웨이의 소셜 미디어에 관련 정보가 올라올 예정이다.



## 엑소두스 베이글 (Exodus Bagels)

3346 Washington St., Jamaica Plain

“엑소두스 베이글은 칸도 6(CANTO 6)가 위치하던 자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로즈린데일 코너의 매우 밝은 장소가 될 것이다. 로즈린데일에 살고 있는 나는 매일 저곳을 지나간다. 출근길에 들러 커피와 베이글을 먹을 것이 기대가 된다” - 카렌 아쿠노비치 (KAREN AKUNOWICZ), 마이어스 + 창(MAYERS + CHANG) 수석 요리사

지난 2년 동안 보스톤 곳곳에 팝업으로 등장했던 엑소두스 베이글이 자메이카 플레인의 로즈린데일에 마침내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시큼한 맛이 나는 사워 도우로 만드는 베이글로 발효 저온 발효법과 맥아 케틀을 사용해 만든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픈 관련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 라 보데가(La Bodega)

21 Nichols Ave., Watertown

“케임브리지에 솔츠(SALTS)가 문을 닫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난 요리사 가브리엘 브레머(GABRIEL BREMER)의 음식과 그가 만들어내던 로맨틱 하면서도 다이내믹한 환경이 그립다. 그가 새롭게 일하게 된 라 보데가에서 새로운 음식, 공간, 서비스와 함께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된다.” - 마크 시한(MARC SHEEHAN), 로열 나인(LOYAL NINE)의 오너 셰프



지난 2014년 프렌치 레스토랑 솔츠가 배수관 파열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케임브리지의 레스토랑가는 안타까워했다. 다행히도 요리사 가브리엘 브레머는 워터타운에서 다시 칼을 잡을 예정이다. 라 보데가는 우루과이 음식점으로 남미에서 자란 와이프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타파스 스타일의 요리는 예전에 솔츠에서 만들던 격식을 한껏 차린 프렌치 요리와 전혀 다르지만, ‘농장에서 식탁’으로 라는 컨셉은 여전히 좋을 것이라고 한다. 레스토랑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오픈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 필드 & 와인 (Field & Vine)

9 Sanborn Court, Somerville

“사라 마키(SARA MARKEY)의 맛 감별력은 탁월하다. 그녀가 가져올 와인 프로그램에 기대가 된다. 그녀의 약혼자인 앤드류 브래디(ANDREW BRADY)는 뛰어난 요리사다. 소박하면서도 흥미로운 요리를 만든다. 이 둘은 서머빌의 오랜 거주자로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유니온 스퀘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 트레버 스미스



(TREVOR SMITH), 코파(COPPA) 수석 요리사

유니온 스퀘어의 저니맨(Journeyman)이 있던 자리에 필드 & 와인(Field & Vine)이 문을 열었다. 9월 초 문을 연 이 레스토랑의 오픈 메뉴로는 로우 바(raw bar)와 지역 특산물 요리 - 북송아와 할루미 치즈를 곁들인 구운 비트, 카운트네 조개와 판자넬라 수프 등이 있다. 여기에 잘 양조된 맥주와 와인까지 더해 벌써부터 서머빌의 단골집으로 자리잡았다는 소문.

## 모미 노미(Momi Nonmi)

1128 Cambridge St., Cambridge

“요리사 크리스 정(CHRIS CHUNG)이 예전의 이스트 바이 노스이스트(EAST BY NORTHEAST) 자리에 일본 이자카야를 오픈할 예정이다. 크리스는 항상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 왔다. 모미 노미는 지금껏 이 지역에서 소개되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보일 것이다. 기대가 된다.” 마크 시한(MARC SHEEHAN), 로열 나인(LOYAL NINE)의 오너 셰프



아카 비스트로와 유니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크리스 정이 모던한 이자카야 스타일의 레스토랑을 오픈한다 - 그의 고향 하와이에서 자주 다니던 일본 바에 대한 오마주라고. 메뉴는 채소 위주의 스몰 플레이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일본술이 될 것이다. 늦은 가을에 오픈 예정이다.

sun@bostonkorea.com

##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FDA, 사랑은 음식의 재료 목록이 될 수 없다

## 콩코드에 위치한 빵집에서 음식 재료 논란 그라놀라의 음식 재료 목록에서 <사랑> 삭제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빵집에서 만든 그라놀라는 사랑을 가득 담아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포장지에 적힌 재료 목록에 사랑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콩코드에 위치한 내쇼바 브룩 베이커리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내쇼바 그라놀라의 포장지의 재료 목록에 “사랑”을 적어 판매해 연방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조사를 받았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음식 재료 목록에 적힌 내용은 “반드시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재료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게재했다.

FDA는 “사랑은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재료 이름이 아니며 음식 재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FDA는 사랑을 재료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여러 가지 위반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이 빵집은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랑을 식품 재료 목록에 적은 것은 주요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쇼바 브룩 베이커리의 존 게이츠 CEO는 인터뷰에서 FDA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1년에 10만 달러를 들여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FDA의 서한이 공개된 이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이츠는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가 때로 너무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느끼고 있다. 지나친 간섭인 것 같다

”라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소 짓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약 20년 전에 가게 문을 연 내쇼바 브룩 베이커리는 영업 초기부터 그라놀라를 판매해 왔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라놀라의 재료 목록에는 사랑이 적혀 있었다.

게이츠는 재료 목록에서 사랑을 지워버리는 것은 정부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반갑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내쇼바 그라놀라의 재료 목록에는 사랑을 적을 수 없다고 FDA가 판단했다



피임약에 대한 포괄적인 보험 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MA주, 피임약 관련 법 제정 추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보험 회사들과 여성의 출산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지난 3일 한 자리에 모여 피임약에 대한 보험 적용과 관련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향후 연방 상원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매사추세츠 주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법이 제정될 경우 연방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된 약품에 한해 보험 회사는 코페이 없이 피임약에 대한 포괄적인 보

험 보장을 제공한다. 다만 일반적인 피임약이 아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코페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17개 보험 회사들을 대표하는 MAHP(Massachusetts Association of Health Plans)의 로라 펠레그리니 회장은 “불행하게도 오바마 케어를 무산시키려는 노력과 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수백만 명의 매사추세츠 여성들이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 617.787.5656

SEOUL TOPOKKI

##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 하버드 케네디스쿨 '펠로우' 직위 재평가키로

## 매닝 논란이후 펠로우 임명에 대한 논란 거세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첼시 매닝을 하버드 펠로우로 초청했다 취소해 대대적인 비난에 직면했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펠로우'란 직위를 재평가키로 했다. 펠로우는 초청한 객원 연구원들에게 수여되는 직위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덕 게이블 대변인은 하버드 크립슨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케네디 스쿨은 현 펠로우란 용어를 적용하는 관행을 좀더 잘 이해하고 학교 전체에 일관된 기준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펠로우 개념 재평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올 가을 펠로우 선발을 두고 미 전역에서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첫 공격은 보수진영과 미국 국가 안보관료들이 케네디 스쿨 정치연구소(IOP)가 매닝을 펠로우로 임명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매닝은 전 미육군 병사이자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가로서 위키리크스에 비밀문서를 폭로해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하버드의 임명 발표 바로 다음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선임펠로우이자 전 CIA 부국장 마이클 모델이 사임했으며 CIA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정치센터의 연사였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닝을 펠로우로 임명하는 것은 매닝의 행동을 은연중에 옹호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얼마 후 하버드 대학 정치센터는

급기야 매닝의 펠로우 임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매닝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 케네디 스쿨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수백명의 동문들은 하버드 대학 드루 파우스트 총장과 케네디 스쿨 더글라스 엘렌도르프 학장에게 코리 르완도우스키와 손스파이서 등 2명의 트럼프 스탭들에게 펠로우를 수여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서명해 보냈다.

파우스트 총장은 27일 인터뷰에서 엘렌도르프 학장이 펠로우 직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우스트 총장은 펠로우들의 초청 및 철회 문제는 케네디 스쿨의 권한이며 대학 본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파우스트 총장은 그러나 스파이서

와 르완도우스키에 대해서는 "엘렌도르프 학장의 주장은 이 두 인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정부에 실질적인 공헌과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케네디 스쿨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렌도르프 학장은 펠로우 철회 후 편지에서 "우리는 매닝을 기리거나 그의 말과 행동을 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우리는 어떤 펠로우를 지지하거나 기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펠로우를 좀더 영예롭게 여기고 있으므로 펠로우 임명시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버드 본부측은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학교 초청직들의 표준을 결정하는 상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더글라스 엘렌도르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이 첼시 매닝의 펠로우 임명 철회를 밝히고 있다



월마트는 5일 북한인들을 고용한 중국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월마트, 北 연계 中 공장서 수산물 수입 중단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미국의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5일 북한인들을 고용한 중국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월마트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동부 훈춘 공장의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입,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 통신은 북한이 훈춘 공장 등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파견해 해마다 약 2억~5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월마트 말리 맥기니스 대변인은 훈춘 공장이 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수입 '중지

등급'(red rating)을 매겼다고 밝혔다.

맥기니스 대변인은 "노동자들의 복지와 명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 방법으로 세계 유통업체의 강제노동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기니스 대변인은 "강제노동 퇴치는 한 기업과 산업, 정부가 대처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월마트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산업 단체와 정부, 다른 유통업체,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jitan@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 틸러슨 국무, 대통령과 사이좋아 트럼프 전직 신뢰 불화설 일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틸러슨 장관이 4일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으며, 사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NBC방송은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지난 7월 20일 국방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악화된 감정을 드러냈고, 또 자신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방송은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틸러슨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좀 더 표하라는 충고를 했고, 다른 고위 관리들은 틸러슨 장관에게 사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NBC보도를 부인하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사퇴를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직무

를 수행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내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한 난 여기에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그는 조국을 사랑한다. 그는 미국인들과 미국

을 우선시한다. 그는 영리하다. 그는 어디를 가든 결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멍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직접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에, 누군가가 대통령의 아젠다를 손상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틸러슨 장관)는 내게 '대화를 잘 나눴다' '우리는 모두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사퇴설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NBC뉴스의 기사를 틸러슨 장관과 펜스 부통령이 완전히 부인했다. 이것은 가짜뉴스이다. 이들은 미국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기 참사가 발생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자리에선 취재진에 "렉스(틸러슨 국무장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평가에 대해 "무척 영광이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 꿈에서 차에 아이들 방치한 한인판사 부부 체포돼

창문닫은 차량에 1세·6세아이 놔두고 마트 쇼핑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괌 현지 매체인 KUAM 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A판사(35)와 남성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오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6살과 1살 된 자녀를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당일 오후 2시30분쯤 아이들이 주차된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주민은 시동이 꺼진 차량의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우려했으며 아이들을 깨우고자 창문을 두드렸으나 이는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민은 자칫 아이들이 더운 날씨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911 신고를 했다고 KUAM뉴스는 설명했다.

괌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부모등 어른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3분 정도만 마트에 다녀 왔다"고 주장했으며 아이들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UAM뉴스는 "아이들의 이마와 얼굴 옆면으로 땀이 흐르는 것을 봤다"는 한 괌 소방관의 발언을 전했다.

icef08@news1.kr

# 라스베이거스 총격범 동거인 범행계획, 전혀 알지 못해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64)의 애인이자 동거인인 마리루 덴리(62·여)가 4일 패덕이 총기난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마리루 덴리(62·여)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로 58명이 사망하고 489명이 부상했다. 패덕은 이날 밤 10시 직후 초호화 호텔과 카지노가 밀집한 라스베이거스 중심가(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열린 '루트 91 하비스트' 컨트리 음악 야외 콘서트장에서 무차별 총기난사를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덴리는 변호사 매튜 롬바드를 통해 전달된 성명에서 "나는 스티븐 패덕을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조용한 남자로 알았다"며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조용한 미래를 바랐다"고 말했다.

덴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필리핀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지난 3일 밤 미국으로 돌아와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덴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덴리는 2주 전, 패덕이 자신에게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저렴한 비행기 티켓을 사줬다고 말했다.

덴리는 "해외에 있는 모든 필리핀인들처럼, 나는 집으로 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볼 생각에 들떠 있었다"며 "거기(필리핀)에 있는 동안, 그는 내게 돈을 보냈고, 그것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집을 살 돈이라고 그는 말했다"고 전했다.

덴리는 패덕이 자신과 결별을 원했다고 생각해, 그 지점에서 걱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덴리는 그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가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총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자동차판매 12년 최대치 급증 허리케인이 살렸다

(로이터=뉴스1) 민선희 기자 = 미국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텍사스 남동부를 중심으로 자동차 교체 수요가 급증, 침체에 시달리던 미국 자동차 업체를 구했다.

3일 자동차 산업 분석업체인 오토 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미국 전체의 자동차 판매량은 계절 조정 연율 1,857만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직전월(8월) 1,614만대와, 시장예상치 1,690만대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다.

9월 판매 증가의 대부분은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었던 텍사스주에서

나왔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의 자동차 교체 수요가 오는 11월까지 미국 자동차판매를 부양할 것이라 업계 컨설턴트들은 분석했다.

자동차 구매 웹사이트 에드먼스에 따르면 허리케인 '하비' 이후 3주 간 휴스턴 지역에서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비 109% 늘었다.

업체별로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전년비 12% 증가했다. 포드는 8.7% 늘어난 반면, 피아트크라이슬러는 10% 감소했다. 일본 브랜드인 토요타는 약 15% 증가했고, 혼다도 7% 가까이 늘었다.

한국 메이커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현대차의 판매가 5만7007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4% 급감했다. 기아차 판매는 6.6% 늘어난 5만2468대였다.

미셸 크랩스 오토트레이더 애널리스트는 "허리케인이 단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렸지만, 이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 말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하비'로 인해 최대 50만대, '어마'로 인해 20만대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minssun@news1.kr



# 구글, AI강화한 '픽셀2' 공개... '구글 렌즈' 기능 최초 탑재

(서울=뉴스1) 김보람 기자 = 구글의 두 번째 자체 개발 스마트폰 '픽셀2'와 '픽셀2XL'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신제품은 인공지능(AI) 카메라 구글 렌즈를 최초로 적용해 AI 기능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일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픽셀2'와 '픽셀2XL', 그리고 새로운 구글 홈 스피커 등을 공개했다.

픽셀2와 픽셀2XL은 디스플레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픽셀2는 5인치 1920x1080 해상도의 441ppi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반면, 픽셀2XL은 6인치 POLED Q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픽셀 시리즈는 구글이

개발하고 하드웨어 제조만 제조사에 맡기는데 픽셀2는 HTC가, 픽셀2XL은 LG전자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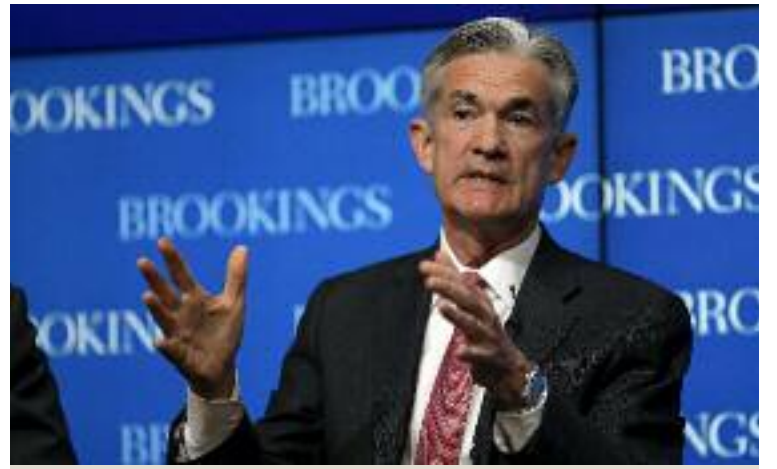
두 제품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를 적용했고 램은 4GB, 저장용량은 64GB와 128GB 버전으로 출시된다. 두 제품 모두 이어폰 잭이 없다.

후면 카메라 화소는 두 제품 모두 122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다. 카메라에 '듀얼 픽셀 센서' 기능을 적용해 빠른 자동 포커스 기능 등 개선된 기능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픽셀2 시리즈의 카메라는 증강현실(AR) 스티커를 포함한 AR 기능을 지원한다. 사진과 동영상에 3D 문자나 이모티콘을 추가할 수 있다.

지난 5월 구글 개발자회의(I/O 2017)에서 선보인 '구글 렌즈' 기능도 처음으로 적용됐다. 구글 렌즈는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카메라에 비춘 사물에 대한 정보를 불러들이고, 사진에 담긴 물체나 글자를 인식해서 알려주는 AI 카메라다. 예를 들어 꽃 사진을 촬영한 후 어떤 꽃인지 물어보면 그 꽃의 이름을 알려준다. 이메일 주소나 와이파이가 비밀번호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기기에 불러들인다.

픽셀2의 가격은 64GB 기준 649달러, 128GB는 749달러, 픽셀2XL은 64GB 버전은 849달러, 128GB는 949달러다.

borami@news1.kr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 연준 의장 후보 파월, 더 많은 규제가 해답은 아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는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 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답은 아니며 미국 정부 기관들은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연준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공화당적 입장을 갖고 있는 파월 이사는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특히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월 이사는 지난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접근법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인물이다.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끝난다.

파월 이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집행하는 규제가 상충하면서 벌어진 간극을 업계 단체들이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이사는 "은행들은 규제로 인해 양질의 유동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필요한 유동성을 안전하게 확보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규제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 그러나 규제는 항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선은 해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월의 이번 발언은 연준 의장으로 임명됐을 경우 연준 운영 방침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제를 지지해오던 파월은 이번에는 입장을 선화해 다소 균형을 이루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 의장 후보 4명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2~3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것만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부담 최소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ULPAN Grill & Lounge**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세트메뉴 **강추!**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CRG**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보기드문 전망좋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 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美 압박에 한미FTA 개정하기로...15개 FTA 중 4번째

## 타당성평가·국회보고 등 협상개시 필요한 제반절차 진행

(세종=뉴스1) 한중수 기자 = 발효한 지 6년차로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곧 개정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개정 압력에 사실상 개정 수준으로 돌입한 셈이다. 통상절차법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이번 2차 특별공동위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수석대표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 호혜성과 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를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점 등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무역 협정이다.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협정 '개정'에 합의하기는 아세안, 인도, 칠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한미 FTA 개정 합의는 미국 측의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했다.

강한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미 FTA에 따른 무역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재협상·폐기를 지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

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 등을 열고 개정 협상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 한미 FTA, 개정·수정 다르다...양국 향후 절차는?

### 韓통상절차법·美무역촉진권한법 규정 따라야 타당성 검토·공청회·의회 보고 등 절차 필요

(세종=뉴스1) 한중수 기자 = 한미 통상당국이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향후 개정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해 서로 간의 교역을 늘리는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협정 '개정'에 합의하기는 아세안, 인도, 칠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개정 절차는 각국 법·제도 규정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적용받는다.

통상절차법은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선 우선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면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 보고 후 최종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와 협상개시 관련 협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처럼 공청회, 연방관보 공지 후 협상 개시 30일 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정(amendment)'이 아닌 '수정(modification)' 협상이나 소규모 부분 개정 등은 미 의회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러한 국내 절차를 완료해야 1차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으며, 만약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 협정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되며, 협정이 파기·종료된 날로부터 양국 간의 FTA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앞서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epoo@joongang.co.kr

## 한미 FTA 개정 '무역불균형서 비롯 또 다른 이유는?

(세종=뉴스1) 한중수 기자 = 5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제기한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발효 6년째로 접어든 한미 FTA로 인해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취임 전부터 두 나라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09억45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13년 이후 4년 연속 대미 무역수지 연간 흑자 규모 200억달러 이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미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 100일 즈음에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도 개정 협상 돌입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은 내부 정치적 불안을 탈피하기 위해 종종 국제적 위기와 갈등을 고조시켜 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거나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도 정치적 위기를 감안한 분위기가 짙었다.

트럼프가 자유무역 반대를 외치면서 얻은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FTA 손질 압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구체적인 개정 규모·방향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의 한미 FTA 개정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돌파구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수차례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를 거론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불균형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이상 개정 협상의 주요 타깃은 자동차·철강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jepoo@news1.kr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OCT. 6 - OCT. 12, 2017

### MAC N CHEESE BULGOGI

This fusion comfort dish satisfies your Korean craving with down home flavor. H마트와 함께 만드는 퓨전 한식~ 고소한 치즈 마카로니와 매콤한 고추장 불고기가 어우러져 이루는 환상의 조화를 맛보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box **\$19.99**
- NATURE'S Tofu 자연담은 두부 Soft/Firm/Silken - Maz/pkg **\$0.99**
- Kabocha 단호박 lb **\$0.88**
- Lotus Root 연근 lb **\$1.88**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lb **\$1.79**
- Purple Sweet Potato Hawaii 하와이산 보라색 고구마 lb **\$1.99**
-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핫 후지사과 NEW CROP lb **\$1.99**
- Nagaimo 일본 마 lb **\$4.99**
- Packed Garlic 팩마늘 4cmt/pkg **2\$3** pkg/for
- Gobo 우엉 lb **\$1.99**

###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 Beef Chuck Eye Roll Steak 등심스테이크 **\$8.99** lb
- Chicken Tenderloin 닭안심 **\$2.49** lb
-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
- Pork Baby Back Rib for BBQ/Cut 바베크용 돼지등갈비 **\$3.99** lb
- Beef Heat Meat 소사태 **\$7.99** lb
-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범벅 등심스테이크 **\$6.99** lb

###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 Pollock 등태 FRESH **\$1.99** lb (FRI/SAT/SUN ONLY 6/7/8 ONLY)
- Head-on Shrimp 머리새우 30-40% FRESH **\$5.99** lb
- Half-Shell Mussels 반갠 홍합 5 lb. 90% FRESH **\$6.99** (FRI/SAT/SUN ONLY 6/7/8 ONLY)
- TONGTONGBAY Cooked Cockle Clam (Half Shell) 통통배 껍질 반포막 FRESH **\$3.99** lb
- TONGTONGBAY Yellow Croaker 통통배 알배기 갈조기 FRESH **\$14.99** (FRI/SAT/SUN ONLY 6/7/8 ONLY)
- Cod Fillet 대구전갈 PRE FRESH **\$5.99** lb (FRI/SAT/SUN ONLY 6/7/8 ONLY)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u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대 **\$9.99** 15 lbs
- BADARECHAN Sunyup Premium Roasted Sesame 바다매한 수렴김 **\$8.99** 2.7oz x 100pk
- HANDREUM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명물비 **\$14.99** 2.0 lbs
- CJ Beakul Pancake/Frying Mix CJ 백설 튀김/부침 가루 **\$1.99** 2.2 lbs
- NISHIMOTO Sekis Premium Medium Grain Rice 세끼 쌀 **\$9.99** 15 lbs
- NONSEHM Nongpum Stir-Fry Noodles w Seasoning Mix 농성 볶음 면구리 **\$5.99** 4.9oz x 40pk (FRI/SAT/SUN ONLY 6/7/8 ONLY)
- HANDREUM Premium Roasted Seaweed Green Layer 해오름 밭도록 파래 도시락김 **\$2.99** 0.1oz x 30pk (FRI/SAT/SUN ONLY 6/7/8 ONLY)
- GOMPYO Ginkgo Flour 골피우 인가루 **\$3.99** 5.0 lbs
- HOUSEFOODS Chinese Mabo Tofu Sauce 하우스 마파두부 소스 **\$2.99** 1.5 lbs
- DONGWON Corned Tuna 동원 참치 **\$8.99** 5.2oz x 4cmt/pkg
- HORMEL SPAM All Varieties **2\$5** can/for
- CHORP DONG Nond Seafood Fruits De Mer 동원 동리 소림동리 **\$6.99** 1.5 lbs
- HOUSEFOODS Sweet Korean Pancake Mix 하우스 호떡믹스 **\$2.99** 14.1oz
- HOUSEFOODS Chinese Mabo Tofu Sauce 하우스 마파두부 소스 **2\$5** 1.5 lbs
- NESTLE Majcha KR Kit 네슬레 녹차 킷 **\$4.99** 4.7oz
- HANDREUM Soy Milk 해오름 두유 **\$9.99** 1.69L (33.8oz) x 24pk (FRI/SAT/SUN ONLY 6/7/8 ONLY)
- Danmic Round Container Set 세라믹 원형 텀러 세트 **\$7.99** (FRI/SAT/SUN ONLY 6/7/8 ONLY)
- CHORP Memorylane Pillow 콘야스일 솔라시 메모리랜 베개 **\$14.99** (FRI/SAT/SUN ONLY 6/7/8 ONLY)
- ZOJIRUSHI Stainless Steel Lunch Jar 조지루시 도시락 용 **\$39.99** (FRI/SAT/SUN ONLY 6/7/8 ONLY)

2017년 추석 35년 역사의 대박 자식 고구마 선물 **한바탕 고구마산만매**  
10월 4일 추석맞이 고구마산 선물세트 최대 **50%할인**  
2017년 10월 15일까지

HELLO HOME SMILE, YOU'RE HOME!  
추석맞이 특별세일전  
KOREAN THANKSGIVING SALE  
Until 10/09/17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slight variations.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prices exclude special orde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STORE: 43 W. Essex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02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 개헌 찬성 67.9%...5·18운동-촛불 정신 추가해야

## SBS 여론조사...수도 이전 규정 근거 마련에는 '반대'가 높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이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SBS가 국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은 67.9%, 반대는 14.8%, 모름·무응답은 17.3%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동안 변한 현실을 반영해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43.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가 29.3%,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및 견제'는 15.0%, '지방분권 강화' 5.5%,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가 5.1%였다.

개헌시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선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등의 내용 중 합의된 것만 개정하는 부분적인 개헌'이 65.0%였으며 '전면적인 개헌'이 30.7%였다.

또한 제7공화국 헌법에 추가할 시 대정신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 59.6%, 지난해 촛불 정신이 41.3%, 87년 6월 민주항쟁은 27.7%였다.

또한 강화해야 할 기본권의 경우 안전권 55.2%, 생명권 39.2%, 환경권 22.0% 순이었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가 48.4%로 찬성(46.1%)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



령별 기준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유무선 혼합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

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3%였다.

goodday@news1.kr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이낙연 국무총리

## 文 대통령-李 총리 4개월간 공합은? 연착륙 긍정 평가

### 외치-내치 역할 분담...文대통령 "총리처럼 품격있게" 실질적 '책임총리' 구현 위한 권한 확대 목소리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정운영의 '투톱'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흡을 잘 맞춰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총리 임명 이후 복핵 등 외교안보 사안에 집중하면서 이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이 총리는 내각을 아우르는 임무를 비교적 잘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의 모든 이슈를 주도했지만, 재난컨트롤타워 역할과 국정과제 수행 등 총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초기 월요회동에선 '업무 분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현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이 총리의 보고와 건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정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간의 신뢰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양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총리가 맡아달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도 "부처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을 할 때는 총리처럼 품격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공개 비난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 뒤의 문 대통령의 당부로, 이 총리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호응하듯 이 총리도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안전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듭 질책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의 구현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공약으로 책임총리 실현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를 롤모델로 꼽은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2004~2006년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실세총리'로 불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과 총리는 보완관계를 잘 정립해가고 있지만 총리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rksj@joongang.co.kr

## 지도부 선출 앞둔 바른정당...관전 포인트는 '전대 개최' 여부

### 자강파 '출마 선언' 속 통합파 '침묵' 지키며 입장 보류 통합파 '유승민 대항마' 없이 전대 참여 고심만 커져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1월13일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를 앞둔 바른정당이 자강파와 통합파의 갈등 속에서 온전하게 전대를 치를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해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새 지도부 체제를 두고 자강파의 '유승민 비대위원회'와 통합파의 '전대' 요구가 대립하던 가운데 결국 통합파들의 뜻대로 전대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자강파 의원들을 비롯한 원외위원장들의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당장 당내 갈등을 봉합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하지만 김영우 최고위원을 비롯한 3선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간 만찬회동에서 나온 '보수우파 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건을 두고 갈등은 또다시 촉발됐다.

당 지도부는 회동 결과에 대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자강파와 통합파간 갈등이 결국 터졌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 벌어진 1차 탈당에 이어 2차 집단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야 결론이 날 듯 하지만 이번 전대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대 개최 여부가 돼 버렸다.

당내 자강파 의원들, 원외위원장, 당원 들을 중심으로는 자강쪽에 힘이 실리고 있어 전대가 치러질 경우 결국 자강파 지도부 구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에 통합파들이 과연 전대를 치른 후 결과에 승복을 할지 아니면 전대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단행동에 나설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강파는 이미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해 유승민 의원까지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통합파들은 공식

입장 없이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다.

단순한 지도 체제 구성에 대한 불만을 탈당 명분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통합파들은 한국당으로부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친박계 청산 신호가 오지 않을 경우 결단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통합파 의원들은 '통추위'를 개인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등 현 시점에서 급진적인 탈당은 모두 지양하는 분위기다.

또 통합파 내부에서는 마땅히 '유승민 대항마'도 찾지 못하고 있어 전대를 치른다고 해도 통합파를 대표하는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다.

여기에 통합파의 수장격인 김무성 고문의 경우 탈당 후 한국당으로 흡수가 아닌 '당대당' '통합쪽에 더 힘을 싣고 있어 통합파들의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대를 앞둔 이번 갈등은 자강파의 수장격인 유 의원과 통합파를 대표하는 김 고문이 추석 연휴 이후 사태를 봉합할지 아니면 전면전에 나설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jrkim@news1.kr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바른정당 만찬에 참석해 인사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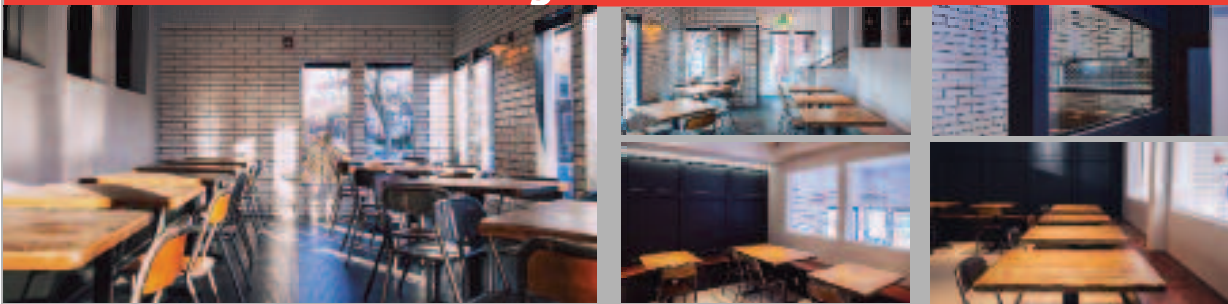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b>나원태</b>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b>제이슨전</b>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b>신보경</b>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b>줄리전</b>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b>비비안유</b>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	--	--	---	---

## Featured Business Listing



### 식당 매매

보스톤 남부에 위치한 성업중인 손님 확보된 식당매매  
 년 매출 \$2,000,000, 최상의 위치, Turn Key Operation  
 Owner Financing 가능

Asking **\$715,000**

## NEW LISTINGS

## LISTINGS

 <b>세탁소</b>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폴플랜트 매매 년 매출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b>\$350,000</b>	 <b>세탁소</b> 보스톤 인근에 위치. 년 매출 \$200,000 + 안정적인 고객층과 새로운 기계들 Asking <b>\$230,000</b>	 <b>살롱 &amp; 스파</b>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b>\$2,500</b> Asking <b>\$45,000</b>	 <b>한식&amp;일식 식당</b>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b>\$450,000</b>	 <b>세탁소</b> 보스톤 공항에서 20분거리에 위치 연매상 \$150,000 + Wholesale 좋은동네 무경쟁 안정적인 수입 오너 파이낸싱 가능 Asking <b>\$195,000</b>	1.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b>\$65,000</b> 2.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b>\$150,000</b>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b>\$30,000</b>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b>\$40,000</b> 5. 보스톤 인근 일식당 : Asking <b>\$225,000</b> SALE PENDING <b>NEW Full Plant 세탁소</b> 보스톤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b>\$165,000</b>
 <b>한식&amp;일식 식당</b>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b>\$599,000</b> <span>Price Reduced</span>	 <b>일식당</b>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b>\$120,000</b> <span>Price Reduced</span>	 <b>컨비니언스 스토어</b> Cambridge에 위치 Asking <b>\$140,000</b>	 <b>비즈니스 콘도</b>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b>\$509,000</b> <span>Price Reduced</span>	 <b>한국식당</b>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b>\$140,000</b>	 <b>세탁소</b>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b>\$160,000</b>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전: 978.494.2043    비비안유: 617.935.2713

# '핵보유국' 가까워진 北... 진짜 ICBM에 핵탄두 장착 시험발사?

## 6차핵실험으로 핵폭탄 위력 과시...ICBM 탑재 입증 남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권은 올 한해 가장 공격적인 도발을 선택하며 핵보유국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결정을 이어왔다.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일본 상공을 관통해 북태평양 해역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실전발사했다.

핵탄두 제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라는 두 가지를 병행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의 위력을 검증했다고 분석한다. 5차 핵실험 대비 10배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된 폭발 능력은 입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

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도 보유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제조능력의 고도화를 암시했다.

다만 미사일에 탑재가능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당일 오전에 탄두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공개했으나 이같은 크기로 6차 핵실험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을 향후 태평양 해역으로 실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북한은 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비정상 고각발사로 시험발사했다. 시험발사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서 정상각도의 실전발사만 남은 수순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간 북한이 핵폭탄 제조와 ICBM 개발을 분리해 병행했으나 각각의 개발과정이 완성에 준하는 단계로 돌입하면서 이제는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의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앞서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태평양 상에서의 핵폭탄 시험은 주변 해역을 지나는 항공, 선박에 직접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인만큼 수위를 조절해 ICBM의 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제 사회를 향해 직접 성명을 발표 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두 기폭시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달 2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재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미 본토에 쏠 수 있는 기술을 올해 말까지 보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3개월이나 6개월, 18개월이 되든 곧 될 것"이라며 "북한이 (ICBM)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의 문제라는 가정 하에 행동해야 한다"고 답했다. [playingjo@news1.kr](mailto:playingjo@news1.kr)

## 10·10 대비 청와대 안보실 추석연휴에도 분주

### 연휴기간에도 평시처럼 유지...직원들은 비상대기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청와대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추석 연휴에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북한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흑시나 모를 상황 대비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연휴임에도 평상시처럼 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정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

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청와대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안보실은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고, 언제든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보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북한 완전과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맞서 곧바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공언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

측이다.

실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한 남포 조선소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 공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등 도발 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과거 연휴에도 도발을 한 전례도 적지 않다는 점도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추석연휴 다음 날인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고, 지난해엔 설 연휴 첫날인 2월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같은 해 추석 연휴를 닮아 앞두고 5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보실 직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비상 대기'를 위해 대부분 서울 인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 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안보실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도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안보실 직원이 청와대 춘추관 앞을 지나다 갑자기 실신했다가 동료들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은 일이 발생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북한의 도발로 안보실 직원들은 그야말로 격무에 시달려 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실 직원들도 24시간 대기하는 조 등을 별도로 짜서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mailto:gayunlove@news1.kr)

## 北, 韓·일에 핵무기 공격하면 사망 210만·부상 770만명

### 북한감시매체 '38'노스가 분석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 공격을 벌이면 양국에서 최대 210만 명의 사망자와 770만의 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감시매체가 4일 분석했다.

'38노스'는 미국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 군사 옵션을 수행하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무기 공격 등 북한에 의한 군사적 확대를 불러올 심대한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매체는 북한 정권의 목적은 미국을 상대로 핵 역지력을 확보함으로써 김씨 일가의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과 핵 능력은 한국과 일본에 심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공중이나 해저에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괌 미군 기지와 무척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무력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llday33@news1.kr](mailto:allday33@news1.kr)

매체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관련 시설, 미사일 배치 장소 혹은 김정은 정권 자체를 공격할 수 있으며, 이때 북한은 섬멸되기 전에 마지막 대응책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20~2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력은 15~250kt(킬로톤)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서울과 도쿄에서 전체 핵무기를 사용공격을 벌이면 최대 210만의 사망자와 770만의 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사상자 수는 6·25 전쟁(사망 37만3599명·부상 22만9625명·납치 및 실종 38만7744명)과 일본의 2차 대전 때 민간인 인명 피해(사망 50만~80만명) 규모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장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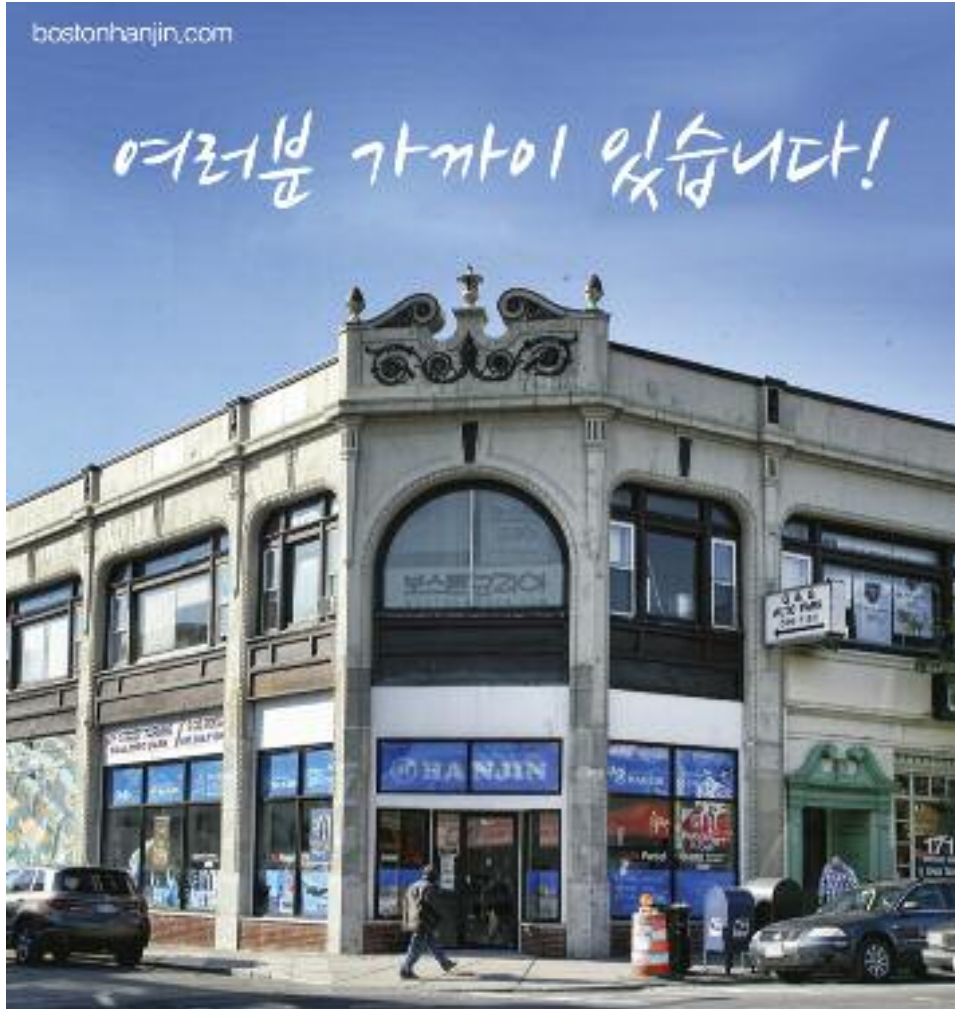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머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자녀 이름 女-하윤 · 男-도윤인기...개명 맨 서연 · 민준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자녀 출산 때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하윤'을, 남자아이 이름으로는 '도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명 때는 여자애겐 '서연', 남자애겐 '민준'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높았다.

4일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까지 출생한 여자아이 가운데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은 '하윤'으로 1946건을 기록했다. 올해 출생한 여자 12만1890명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서윤'이라는 이름이 1871건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서연 1659건 △하은 1594건 △지유 1582건 △지우 1469건 △하린 1441건 △수아 1416건 △지아 1371건 △서아 1289건 등이 선호도 높은 이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서윤'(2854건)과 '서연'(2581건)이 '하윤'(2450건)보다 인기가 높았으나, 올해 들어 '하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남자아이 이름으로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2120건으로 올해 출생한 남자아이 14만6231명 가운데 가장 많이 등록됐다. '하준'은 2084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서준 1891건 △시우 1786건 △민준 1771건 △예준 1658건 △주원 1637건 △유준 1488건 △지호 1458건 △준우 13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민준'(2991건)과 '서준'(2957건), '하준'(2945건)이 1~3위를 차지해 '도윤'(2855건)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올해들어서는 '도윤'이 1위를 차지했다. '민준'은 5위에 그쳤다.

개명시에 선호되는 여자이름은 '서

연'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명한 795명이 서연이라는 이름을 택했다. 이밖에도 △지원 789건 △수연 725건 △지윤 637건 △서윤 617건 △서현 596건 △유진 564건 △서영 542건 △채원 518건 △지현 505건 등의 선호도가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민준'으로 개명한 이들이 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우 295건 △지훈 294건 △도현 292건 △현우 284건 △서준 270건 △건우 262건 △도윤 256건 △주원 221건 △우진 217건 등이 선호됐다.

올해 등록된 여성 개명 접수는 7만 554건으로, 남성 3만4991건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들이 다양한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



정해 매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dosool@news1.kr

## 명절 화투 · 카드게임 도박일까? 금액 · 시간 등 유의하세요

'일시적 오락'으로 구분되면 처벌 안 받아  
시간 · 금액 · 참가자들의 관계 등으로 처벌 가능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평소 볼 수 없었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오락'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명절날 접당 100원, 200원을 걸고 화투나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은 우리 명절의 흔한 풍경이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걸고 재미로 하는 오락도 '한끗' 차이로 도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현행법상 도박과 오락을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오락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칫 도박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대법원의 판례는 도박죄 성립 여부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와 지인 두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오후 4시에서 30분가량 화투를 이용한 '섯다'를 했는데, 기본금 100원을 걸고 패를 본 뒤 추가로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판돈은 2만 7500원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적발 당시 각자 만원 안팎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6월 같은 법원에 도박 혐의로 기소된 B씨(70·여) 등 5명은 유죄를 인정받아 각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점 200원의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돈은 크지 않았지만 친목이 아닌

목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도박이 이어진 것이 유죄를 입증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 '홀라' 게임을 했던 C씨(55)는 도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시적 오락을 위해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압수된 돈이 51만7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홀라를 한 시간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일뿐만 아니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이 친목계를 위해 식당에 갔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금액이 많다고 판단되고 게임 목적이 오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기 위한 행위 자체에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을 살펴볼 때 친척들 사이에 소액을 걸고 재미로 치는 화투나 카드게임은 금액이 커지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경 지역의 한 판사도 "화투나 카드게임이 도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돈뿐 만 아니라 화투를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건들이 고려돼야 한다"라며 "소액으로 가족들 사이에 한 화투의 경우 혹시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소액의 돈을 걸고 하는 오락으로서의 고스톱·카드게임이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겠지만 돈이 오가는 만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potgus@news1.kr

## 경찰수사 지난 5년간 263건 수사 과오 인정...서울청 74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지난 5년간 경찰수사 263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643건의 수사 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63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혔다.

수사이의 신청건수도 2012년 1231건에서 2016년 141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수사과오 인정 현황도 2012년 48건에서 2016년 5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이의 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수사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74건)이었으며 경기청(62건), 인천청(31건), 대구청(16건), 제주청(12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

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제주청이 113건 중 12건(1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청(9.9%), 강원청(6.6%), 광주청(6.1%), 경기청(6%), 서울청(5%)순으로 전국평균(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가 인정된 169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1명을 제외한 168명에 대해 자체교양 및 경고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jra@news1.kr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다니엘 / 요한계시록 성경세미나**

**“미래를 아는 특권”**

2017년 보스톤 한인들을 위한 성경 예언 연구 세미나

**강사 : 박영호 목사**  
**광야소리제작원 원장**

**매일의 연재**

일. 역사의 종점은 과연 있는가?  
월. 하늘은 답을 알고있다  
화. 지구촌 최후의 대제국은 어디인가  
수. 미국의 선택  
목. 양의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가다  
금. 세계 단일 정부는 인류의 희망인가?  
토.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외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짜 : 2017년 10월 29일(일) ~ 11월 4일(토)**      **시간 : 오후 7시 30분 / 마지막 날(오전 11시)**

**장소 : Crowne Plaza Boston - Woburn, 15 Middlesex Canal Park Dr, Woburn, MA 01801**

**주최 : 보스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문의 전화 : (317) 374-4786**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Asking: \$1,529,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 Clara Paik



Just Listed: Condominium  
26 Broad Street #101, Marlborough, MA  
Asking: \$35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Rental  
29 George Rd. Unit 29,  
Winchester, MA  
Asking Price: \$1,950/mo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Multi-Family  
905C Mas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2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FUTURE  
LISTING**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230 High Street Acton, MA 01720  
Asking price: \$549,0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4 Deane Street - Unit 6, Maynard,  
MA 01754  
Asking price: \$449,9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Single Family  
90 Old Stow Road, Concord,  
MA 01742  
Asking price: \$569,000.00  
Listing Agent: Carol Lenox



Just listed: Town House  
4 Deane Street - Unit 4, Maynard,  
MA 01754  
Asking price: \$449,9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01752  
Asking price: \$284,90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UNDER AGREEMENT: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Listing Agent: Maria Koral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ianna Johnson-King**  
336.392.7838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 패트리어츠 승리의 열쇠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7 시즌이 시작하고 4경기를 마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성적은 2승 2 패다. 성적 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까지 살펴보면 패트리어츠의 올해 시즌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다.

어쩌면 패트리어츠는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승률이 5할이 되지 않는 팀이 될 수도 있고, AFC 동부지구 왕좌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패트리어츠가 반등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열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 러닝 공격 확립

이번 시즌 패트리어츠는 패스를 통한 공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지난 시즌까지 팀내 최고 리시버였던 줄리언 에들먼이 부상으로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다른 리시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닝 공격은 다른 양상이다. 시즌이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모양새다.

2016년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무서웠던 것은 필요할 때마다 르개렛 블런트라는 러닝백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블런트는 지난 시즌 1,100야드 이상을 기록했고, 18개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NFL에서 가장 많은 러싱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러닝 공격이 위력적

이면 패트리어츠는 경기의 흐름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올해 패트리어츠의 러닝 공격은 지난 해보다 한참 못 미친다. 경기당 평균 95.5야드의 러닝 공격은 리그 20위에 머물러 있다. 패트리어츠 로스터에 있는 러닝백 중 러닝 시도당 평균 4야드 이상을 전진하는 선수는 제임스 화이트밖에 없다.

러닝 공격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쿼터백 브래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브래디가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패싱 공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러닝 공격이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 세컨더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올해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패스에 대한 수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상대 팀 쿼터백을 브래디 급의 선수로 만들어주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패스 수비가 영망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다. 상대 팀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는 확실한 패스 러시가 없다는 점과 패스 수비를 담당하는 세컨더리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패트리어츠는 초반 4번의 경기에서



스타 코너백 스테판 길모어가 패트리어츠의 지역 방어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팀 리시버에게 수십야드 패스를 허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고, 이럴 때마다 상대팀 리시버 근처에는 수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리시버에게 수비가 붙어 있지 않고 마음껏 패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패트리어츠 세컨더리 사이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어쩌면 예견되었을 수도 있다. 오프시즌 동안 큰 주목을 받으며 패트리어츠에 새로 합류한 스테판 길모어는 뛰어난 코너백이지만 맨투맨 수비를 주로 해오던 선수다. 길모어는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이후 지역 방어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모어가 지역

방어 전술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맨투맨 수비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패트리어츠가 패스 수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매주 패트리어츠를 상대한 쿼터백들은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 애리조나, 난타전 끝에 콜로라도 꺾고 NLDS 진출

## LA 다저스와 5전3선승제 디비전시리즈 격돌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난타전 끝에 콜로라도 로키스를 꺾고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애리조나는 4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채이스필드에서 열린 2017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콜로라도를 11-8로 꺾었다.

단판 승부로 펼쳐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한 애리조나는 내셔널리그 최고 승률팀이자 서부지구 우승팀 LA 다저스와 디비전시리즈에서 맞붙는다. 애리조나와 다저스의 디비전시리즈 1차전은 오는 7일 다저스의 안방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양 팀 선발 투수들이 의외로 일찍 무너진 가운데 타격전이 벌어졌다. 애리조나 잭 그레이는 3⅓이닝 4실점, 콜로라도 조나단 그레이는 1⅓이닝 4실점을 기록한 뒤 마운드를 내려갔다.

애리조나가 1회말부터 그레이를 두들기

며 선취점을 뽑았다. 데이비드 페달타와 케텔 마르테의 연속 안타에 이어 폴 골드슈미트가 선제 3점포를 폭발시켰다.

2회말에도 애리조나는 페달타의 중전안타와 마르테의 3루타로 가볍게 추가점을 냈다. 3회말에는 다니엘 데스칼소가 투런포를 터뜨렸다. 스코어는 순식간에 6-0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콜로라도도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다. 4회초 1사 1,2루 찬스에서 헤랄도 파라의 적시타, 마크 레이놀즈의 내야 땅볼, 조나단 루크로이의 적시 2루타, 알렉시 아마리스타의 적시타로 4점을 뽑았다. 7회초에는 찰리 블랙몬의 스윙스번트로 1점을 보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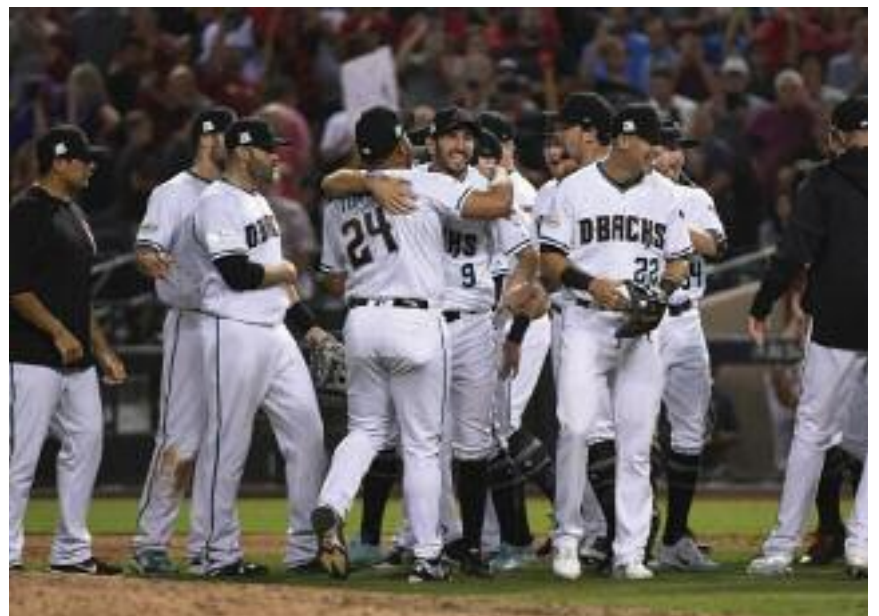
6-5까지 쫓긴 애리조나는 7회말 투수 아치 브래들리의 2타점 3루타가 터지며 8-5로 달아났다. 콜로라도도 8회초 놀란 아레나도와 트레버 스토리의 백투백 솔로포로 2점을 다시 따라붙였다.

애리조나는 끝내 리드를 넘겨주지 않았다. 8회말 집중력으로 3점을 추가,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콜로라도가 9회초 카를로스 곤살레스의 적시타로 추격했지만 승부는 뒤집히지 않았다.

골드슈미트가 3점포를 포함해 5타수 2안

타 3타점, 제이크 램이 5타수 4안타로 애리조나 타선을 이끌었다. 브래들리는 5번째 투수로 등판해 1⅓이닝 2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석에서 췌기 2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doctorj@news1.kr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1-8로 콜로라도 로키스를 꺾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선수들이 서로 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LIS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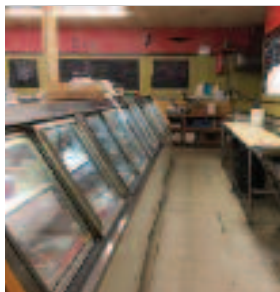


새 바람 Waltham, 6 B/R, 3 Bath Two Family House, 좋은 투자용 주택  
**ASKING \$798,000**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합한 4 B/R, 2 1/2 Bath  
**ASKING \$640,000**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160,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70,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풀랜트 세탁소  
**ASKING \$160,000**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Boston동북부 바닷가 부촌에 위치한 이태리 커피 및 샌드위치 Cafe & Bakery Owner 이주, 좋은 가격  
**ASKING \$4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unwoody Parish of Christ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연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리와 기쁨의 배너라 (딤후 3:15)  
담당목사 / 우시환

주일예배 / 오후 9: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치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 7:30	LUFE 모임 / 주일 4:00

335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http://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http://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담당목사: 박일중 목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http://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http://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2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선호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781.266.7245**



혹침대 · 돌침대 가지신분  
매그니플렉스 구입시 크레딧 드림!!!  
(기간: 2017년 10월 31일까지)

60년 정통의 이태리 名品 침대

# magniflex BIG SALE

"NASA 기술이 탑재된 60년 전통 매트리스가 건강한 잠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사용 후기

잠자리가 너무 포근한 느낌과 보온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심하게 코를 골던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고 나면 아주 개운합니다. 제 아내는 깊은 잠을 못잤는데 이제는 숙면을 취해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리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동원 (Livingstone, NJ)

허리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보통 매트리스 사용했을때 스테로이드를 5회 맞아도, 병원치료를 다녀도 안났던 허리 통증이 매그니플렉스 사용후 통증병원 치료와 병행후 빠르게 통증이 없어져서 딸에게 하나 더 사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이상 스테로이드를 안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사문 (Closter, NJ)

먼저 사용하던 침대가 폭들어가 불편해 아침에 늘 개운치 않았는데 매그니플렉스를 바꾼후 탄력성이 뛰어나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자리가 개운하고 피로가 풀리고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손오곤 (Bayside, NY)



- NASA 기술이 탑재된 우주복 재질로 만들어 자체 보온기능! 전기담요, 돌침대, 혹침대 없이 따뜻한 잠자리!
- 허리및 목의 스트레칭 기능으로 목과 허리 디스크 생성으로 치료효과에 도움을 준다. (Magnistrech에만 적용)
- 누웠을때 아주 편안하고 움직임이 자유로와 압박된 척추를 풀어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움을 준다.
- 24시간 독성제거 후 출고되어 안전한 잠자리! 옆사람이 움직여도 진동을 느끼지 않아 숙면을 취함.

몸이 냉해서 전기담요, 혹매트등을 사용했는데 전자파 때문인지 개운하지 않았는데 매그니플렉스를 사용후 전기없이 자체 보온 기능이 뛰어나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 잠자리가 너무 개운합니다. 남편은 부드러운 면, 저는 딱딱한 면을 좋아해 서로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좋고 돌침대, 혹침대, 전기담요 사용시 전자파에 7시간 이상 노출될 필요없어 너무 좋아요.

박진아 (Hackensack, NJ)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전도사가 되어 버렸네요. 몸을 잘 받쳐 주니까 잠자리에서 뒤척임이 없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와이프는 허리가 안아프고 좋은 매트리스를 사게 해줘서 고맙다고 기뻐 합니다.

David Kim (Fort Lee, NJ)

먼저 사용한 매트리스가 누우면 꼭 꺼져 움직일때 불편했는데 매그니플렉스는 움직일때 아주 편안해 깊은 잠을 자서 상쾌한 아침을 매일 맞이해 개운합니다.

이선철 (Ridgefield, NJ)

이전에 스프링 침대를 사용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로 바꾸고 허리통증도 사라지고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다리에 쥐도 잘 안나고 있습니다.

임 안젤라 (Norwood, NJ)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에 누우면 너무 편하고 베김이 없어요. 전에는 제가 움직이면 옆에 자는 와이프가 신경이 예민해 잠을 자주 깬데 이제는 옆사람이 움직여도 흔들림이 없어 와이프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사용후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 머리까지 개운 하다고 합니다.

Johnny Kim (Rego Park, NY)

돌침대의 딱딱함이 싫어 매그니플렉스 제품을 사용하니 누우면 허리 곡선을 부드럽게 받쳐주어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이 들어 혈액 순환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민복선 (Paisades Park, NJ)

전에는 템퍼페딕 제품을 사용했는데 누우면 폭들어가 움직임이 힘들고 답답하고 덥고 했는데 매그니플렉스에 바꾸니 여름에 시원하고 탄력이 너무 좋아 누우면 아주 편해 깊은 잠이 듭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에드워드 홍 (Fort Lee, NJ)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201-417-5350**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점 골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 201-417-5350**  
(아씨 플라자 필라델피아)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e. Ellicott City MD 21043  
**571-235-7900 / 201-417-5350**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던킨도넛 매장옆)  
**201-941-0010**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쉐프, 스시헬퍼, 스시 배우실분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T. 646-246-2721 (연락처 남겨주세요)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울스톤 오피스 임대**  
최적의 비즈니스 장소. (약 400Sq.)  
울스톤 하버드 에비뉴 소재 건물 2층.  
건물 뒤 무료주차 가능.  
월 \$500 (인터넷, 난방, 전기료 포함).  
한인식당 및 각종 음식점 인근.  
T.617-955-9112 (문자 남겨 주세요)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교포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협회	781-854-8880
세인트앤드루	508-826-5270
이복5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미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교회	617-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한울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617-686-5526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9-45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머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앤디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궁방	617-437-0378
스프링필드제일교회	508-734-0446
웨스트메인 헤어	508-768-7675
케이티헤어디자인	978-772-7886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주)재용	617-421-2282
한서진내과	401-722-0305
한성신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 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테드카어로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영차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 방치하면 큰 병 위험... 매년 증가하는 '염증성 장 질환'

- ...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염증성 장 질환 5년 사이 30% 증가
- ... 조기 진단 및 치료 통해 평생 관리하면 일반인과 같은 삶 유지 가능

전 미국 대통령 J.F. 케네디와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래퍼 테이크원과 가수 윤종신의 공통점은 또 무엇일까? 전자는 두 명 모두 정치인이자 궤양성 대장염을 앓았던 이데이고, 후자는 연예인이자 크론병 환자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모두 '염증성 장 질환'에 속한다. 양 질환 모두 소화기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복통 및 설사, 혈변 등 유사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염증성 장 질환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치료가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박재석 소화기센터장은 "염증성 장 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발견이 늦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그런 만큼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빠르게 병원을 방문,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 질환 급증 추세

일반인들에게 '장 질환'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식중독을 위시한 '감염성 장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 질환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는 각각 38,212명과 19,204명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6.6%, 30.4%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성 장 질환을 대표하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장 내 염증이다.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몸 속 면역체계가 장기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동양보다는 서양에 환자가 많고, 국내의 경우 최근 환자가 급증한 것을 토대로 서구화된 식습관 또

한 이러한 염증성 장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장 내 염증을 비롯해 혈변,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등이 공통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부적인 증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직장에서 병변이 시작되어 점차 안쪽으로 염증이 전파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병적인 변화가 흩어지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

반면 크론병의 경우 대장을 비롯해 직장, 소장, 식도 등 위장관 전반에 걸쳐 염증이 일어나며, 병변이 연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궤양성 대장염은 심할 경우 대장절제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반면, 크론병의 경우 이러한 절제술로도 완치가 어렵다.

더불어 염증성 장 질환은 환자가 젊은 층에 많은 것이 특징이다. 크론병의 경우 지난해 전체 환자 중 70%가 만 40세 미만 환자가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궤양성 대장염 또한 20~40대 환자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합병증 위험, 조기 진단 치료 및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 유지해야

염증성 장 질환은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의해 실제 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임상증상이 약하거나, 혹은 병이 완치되었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문제는 이 경우 장 천공, 장 폐색, 대장암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장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 검사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장 내 염증 및 궤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장암을 비롯한 다른 장 질환의 진단 또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염증성 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염증으로 인한 손상이 적은 만큼 치료 예후도 좋다. 더불어 난치 질환인 만큼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할 경우도 생기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일반인과 같은 삶을 누리는 데 지장이 없다.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 오염 가능성이 있는 길거리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술이나 커피 등 장을 자극하는 음식도 피해야 하며, 사람에 따라 생야채나 콩, 과일 주스 등 또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박재석 센터장은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자의적 판단으로 복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염증 재발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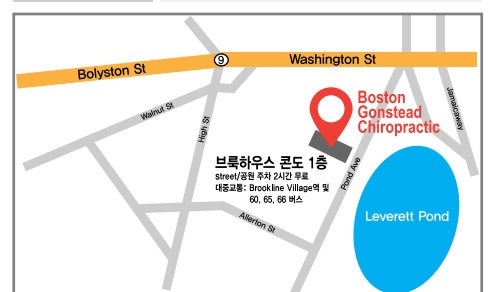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오직 손으로만 교정하는 정통 카이로 프랙터, Dr. Gonstead Chiropractic을 검색해 보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목(M-T) : 8am-8pm(야간진료가능) 금,토,일(Fri, Sat, Sun) : Closed





## 콜린 퍼스 vs 이병헌 vs 마동석 '아저씨 히어로'들의 연휴 대전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아저씨들의 연휴 대전이 시작됐다. '킹스맨: 골든 서클'(매튜 본 감독)로 이미 한 차례 기선을 제압한 콜린 퍼스에 이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매력 부자 '아저씨들'인 이병헌과 마동석이 각각 영화 '남한산성'(황동혁 감독), '범죄도시'(강윤성 감독)로 극장가 정복에 나선다. 대체로운 영화들이 흥행을 놓고 겨루는 이번 연휴의 마지막 날, 최후의 미소를 지을 주인공은 누구일까.

### 콜린 퍼스 매너남의 귀환

'킹스맨: 골든 서클'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콜린 퍼스의 귀환 소식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작품이다. 전작인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해리 하트(콜린 퍼스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영화를 사랑한 많은 팬들에게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다. 그의 캐릭터는 영화 속 악동 에그시와는 대조적인 품위있는 귀족과 같은 모습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국내에서는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 maketh man)"이라는 그의 전매특허 대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 정도였다. 이후 매튜 본 감독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2편에서 다시 해리 하트를 살리기로 결정했고, '킹스맨: 골든 서클'을 통해 이를 성사시켰다. 본 감독은 지난달 26일 국내 취재진과의 원격 인터뷰에서 "스토리텔링의 장점은 어떤 이야기든 풀어갈 수 있는 점이다. 해리 없이 '킹스맨'을 만드는 건 마음이 아팠고 콜린 퍼스와 다시 일을 하고 싶었다. 관객들이 해리가 등장하는 '킹스맨'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관객들은 극 중 해리 하트가 재등장하는 과정이 평범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또한 영화 속 성격의 변화를 겪는 해리 하트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확연히 갈리는 상황. 하지만 대다수의 관객들은 일단 해리 하트의 귀환만으로도 만족감을 표하는 편이다. 돌아온 해리 하트는 1편과는 또 다른 면들을 보여주며 영화의 긴장감을 높인다. 에그시와 해리의 관계의 변화가 이번 영화의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 이병헌 연기신의 정통 사극

연기과 배우 이병헌이 추석 시즌 선보일 영화는 정통 사극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은 근래의 '충무로표' 사극 영화와는 조금 다른 톤을 띄는 작품이다. 기존 흥행에 성공한 사극들이 역사에 '픽션'을 가미한 일종의 '퓨전 사극'이었다면, 이 작품은 시대상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층 진중한 느낌을 준다. 고어체를 사용한 어투부

터, 주인공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등이 보여주는 정극 연기까지. 추운 겨울 남한산성에 갇혀 47일간을 보낸 임금과 신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그려낸 점이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이다.

이병헌은 이번 영화에서 조정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과의 화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는 이조판서 최명길 역을 맡았다. 최명길과 가장 크게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은 예조판서 김상헌(김윤석 분)이다. 이병헌은 극 중 고지식한 김상헌과 대립각을 세우며 위태로운 나라의 운명 앞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뇌하는 충신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남한산성'은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한 데 모아 놓은 것 만으로 예비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화다. 실제 영화 속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김윤석과 이병헌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연기 대결을 보여준다. 김윤석은 도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이자 깨끗한 성정으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병헌이 도리보다 삶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자로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으로, 각각 공감을 이끌어 낸다. 김윤석이 불 같은 연기로 강렬함을 보여준다면, 이병헌은 영화 전반을 아우르며 관객으로 하여금 서서히 조선의 '슬픈 운명'에 몰입하게 만든다.

### 마동석 '리얼한' 형사 액션

마동석이 영화 '범죄도시'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매우 '리얼'하다. 그의 자연스럽고 유쾌한 연기는 마치 가리봉동에 실제 '마석도'(극중 마동석의 이름) 형사가 존재할 것만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범죄도시'는 2004년 주먹 한방으로 도시의 평화를 유지해 온 괴물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하얼빈에서 넘어온 신흥범죄조직의 보스 장첸(윤계상 분)을 잡기 위해 나서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다. 마동석은 영화 '부산행'에서 그랬듯 '범죄도시'에서도 무적의 전투력을 보여준다. 거기에 허를 찌르는 유머가 캐릭터의 매력을 살려준다. '코미디' 장르가 아님에도 시종일관 관객들의 웃음보를 자극하는 마석도의 유머러스한 '원맨쇼'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실 '범죄도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라 '부산행'처럼 추석 기간 온 가족이 함께 볼만한 액션 영화로 여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간 마동석이 영화에서 선보였던 액션 캐릭터와 애드립과 정극 연기를 오가며 선보이는 유머 등의 '엑시스'를 감상하기에는 더없이 훌륭한 영화다.

eujenej@news1.kr

## '매드독' 유지태X우도환 美친 카리스마 대결 '치명적 케미'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매드독'이 강렬한 예고 영상으로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11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매드독'(연출 황의경, 극본 김수진) 측은 최근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유지태는 깊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곧이어 부실공사로 붕괴된 건물물이 비친다. 누군가의 실수가 사고가 되고 사고는 재난이, 재난은 음모가 되는 세상. "살아서 행복합니까"라고 묵직하게 읊조리는 유지태의 목소리는 깊은 무게감을 만들어내며 앞으로 매드독이 펼칠 통쾌한 카운터 펀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대한민국 최대의 사건, 욕망에 감춰진 진실. 그 실체를 파헤친다"라는 문구와 함께 건물 붕괴부터 비행기 추락사고까지 이어지는 영상은 드라마에서 그려나갈 이야기에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화면 가득 채우는 유

지태를 비롯한 우도환, 류화영, 조재윤, 김혜성의 열연은 '다크 히어로 캐릭터 군단' 매드독에 대한 호기심 역시 끌어올린다.

'믿고 보는 배우' 유지태와 '대세 배우' 우도환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 역시 궁금증을 높인다. 날 선 카리스마와 묵직한 존재감으로 몰입감을 자아내는 유지태와 시종일관 속을 알 수 없는 비릿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 우도환의 대비는 치명적인 여성 블랙홀 콤비의 탄생을 예고케 한다. 특히 유지태가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이런 거에 겁먹을 것 같아?"라며 우도환의 목을 조르는 장면은 두 사람이 전개할 범상치 않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수직상승시킨다.

한편 '매드독'은 천태만상 보험범죄를 통해 리얼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신랄하게 드러낼 보험 범죄 조사극이다. 오는 11일 오후 10시 1회가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 'SNL9' 김준현X김민교, '구해줘' 패러디...교주 변신 '소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tvN 'SNL 코리아 시즌 9' 호스트 추성훈편에서 드라마 '구해줘'를 패러디한다.

30일 밤 10시20분 방송되는 'SNL 코리아 시즌 9'의 호스트 추성훈편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OCN 드라마 '구해줘'를 패러디한 '구워줘'를 선보인다. '구해줘'는 사이버 종교 집단에 맞서 첫사랑을 구하기 위한 청년들의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드라마.

이날 방송에서 SNL 크루들은 열정적인 연기와 분장으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패러디를 펼친다. 먼저 김준현은 드라마에서 악명을 떨쳤던 사이버 교주로 변신한다. 백발의 머리와 강렬한 표정, 손짓이 한데 어우러져 실제 드라마 속 장면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연기를 펼치는 것.

특히 '새한우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열변을 토하는 김준현의 모습이 시청자들을 폭소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혜정은 사이버 집단에게 납치당한 역할을 맡는다. 김준현과 신도들에게 흠뻑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김민교는 광신도 집단의 손길을 뿌리치고 혜정을 구하는 열혈 청년으로 나선다. '새한우님'을 모시는 먹보 집단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하지만 제작진이 방송



을 앞두고 공개한 사진에서 김민교는 신도들과 함께 무언가에 홀린 모습으로 궁금증을 키운다. 과연 크루들이 선보일 소름돋는 고퀄리티 패러디와 웃음 폭탄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uemchang@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7년 9월 25일 ~ 2017년 10월 1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드라마(황금빛내인생)	26.3%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22.8%
3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20.8%
4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7.3%
5	KBS1	일일드라마(내남자의비밀)	17.2%
6	KBS1	KBS9시뉴스	14.2%
7	SBS	아침연속극(달콤한원수)	13.7%
8	MBC	일일연속극(돌아온복단지)	13.6%
9	MBC	아침드라마(훈장 오순남)	13.3%
10	KBS1	가요무대	12.3%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드라마(황금빛내인생)
2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3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4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5	SBS	아침연속극(달콤한 원수)
6	MBC	일일연속극(돌아온복단지)
7	MBC	아침드라마(훈장 오순남)
8	MBC	주말특별기획(도둑놈도둑님)
9	MBC	주말연속극(밥상 차리는 남자)
10	MBC	특별기획(별별 며느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가을 아침	아이유
02	좋니	윤종신
03	시차 (We Are) (Feat. 로꼬 & GRAY)	우원재
04	쌈 탈꺼야	볼빨간사춘기
05	가시나	선미
06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아이유
07	DNA	방탄소년단
08	나의 사춘기에게	볼빨간사춘기
09	비도 오고 그래서 (Feat. 신용재)	헤이즈 (Heize)
10	Blue	볼빨간사춘기

## 숫자 퍼즐 (Sudoku)

				1	9		5	7
	3		6					4
8			2	5				
	7	5		2				
6	2			3			7	8
				9		2	3	
			9		4			3
4					2		6	
9	5		1	6				

10월 8일 - 10월 14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b></p> <p>●운수: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난날에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니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 5일 길일. 1, 7일 주의.</p>	<p><b>소띠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b></p> <p>●운수: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금전: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 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더 이상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범띠   해결의 실마리를</b></p> <p>●운수: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금전:말이 오고가던 때 때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p><b>토끼띠   보람을 얻을 수 있는</b></p> <p>●운수: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금전: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습니다. ●애정:찬스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용띠   욕심을 가릴 줄 알아야</b></p> <p>●운수:소낙비가 오라가락 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전: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유지를 하는데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애정: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욕심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2,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뱀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b></p> <p>●운수: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가급적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4일 주의.</p>
<p><b>말띠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b></p> <p>●운수:사업상으로는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운세입니다. 직업운에 있어서 승진이나 이동수가 있습니다. ●금전: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애정: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의 반가운 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양띠   더 힘껏 노력해야</b></p> <p>●운수: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당장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애정: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0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원숭이띠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b></p> <p>●운수: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용기내야 합니다. ●금전: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지금 회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애정: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p><b>닭띠   미리 낚아서 바라면</b></p> <p>●운수:스스로의 감정조절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유자해 오던 것을 그만 두려야 있습니다. ●금전:원하는 것을 미리 낚아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애정: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9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개띠   원가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b></p> <p>●운수: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의 일치성을 보여야 좋은 점수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원가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 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이면 안 됩니다. ●애정: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모수 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곳을 택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4일 길일. 8, 11일 주의.</p>	<p><b>돼지띠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b></p> <p>●운수: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지고 쉽고 기만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애정: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 "한국 가수 최초"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빌보드 200' 동시 점령

(서울=뉴스1스타) 손현석 기자 = 방탄소년단의 인기 질주가 매섭다. 3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에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DNA'는 '핫 100' 67위, LOVE YOURSELF 承 'Her'는 '빌보드 200' 25위를 기록했다. '핫 100'은 지난주 85위에서 18계단이나 뛰어올랐으며, '빌보드 200'은 지난주 진입에 이어 2주 연속 차트 유지 기록하며 K팝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한국 가수가 '핫100'과 '빌보드 200' 차트 동시에 2주 연속이나 머문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한국 가수의 한국어 앨범으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뿐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아티스트 100' 차트 9위, '톱 앨범 판매' 차트 68위, '캐나다 앨범' 차트 24위,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소셜 50' 차트 역시 1위를 차지해 42번째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스트리밍 송' 차트와 '캐나다 핫 100' 차트는 각각 38위와 47위로 처음 진입하며, 컴백 2주차에도 식지 않은 전 세계 인기를 증명했다. 앞서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타이틀곡 <DNA>로 1주일 전 빌보드 '핫 100'에 첫 등장한 뒤 이번 주 67위로 급등하며 케이팝 그룹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spinoff@news1.kr



## 볼빨간사춘기 '썸탈꺼야', 5일째 차트 1위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볼빨간사춘기가 곡 '썸 탈꺼야'로 5일째 차트 1위를 수성 중이다. 볼빨간사춘기는 2일 오전 8시 기준 멜론은 물론이고 지니, 벅스, 엠넷, 소리바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 곡은 실시간 차트는 물론이고 일간차트까지 1위에 올랐다. '썸 탈꺼야'는 지난달 28일 발표,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등 유수의 아이돌과 가수를 밀어내고 1위에 안착했다.

'썸 탈꺼야'는 좋아하는 사람과 '밀당'이 아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한 사춘기 소녀의 풋풋한 감정을 담은 노래다. 앞서 안지영은 "이번 앨범으로 풋풋한 감성을 전하고 싶었다. 사춘기스러운 순수한 음악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고등학교 시절 성장통을 겪은 경험을 녹였는데, 녹음하다가 울컥해서 울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hmh1@news1.kr

## '썸터뷰' 양세형, 우효광 프리포즈 패러디...추지현 폭소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추지현이 양세형의 깜짝 이벤트에 웃음을 터뜨렸다. 양세형은 3일 저녁 8시35분 방송된 SBS 추석특집 '양세형의 썸터뷰'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추지현에게 "

가장 좋은 때에 추지현씨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금팔찌를 건넸다. 이에 추지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양세형이 추지현의 남편인 우효

광의 프리포즈를 패러디한 것. 추지현은 제작진의 불꽃 이벤트에도 웃음지었다. 그리고는 "우효광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말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aluemchang@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Korean speaker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is a leading food wholesaler delivering sushi related products to restaurants throughout New England. We ar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s and need a rep who can speak Korean, but who is also competent in English. The job starts at 6am Monday through Friday (work a half day every other Saturday). Need to maintain customer accounts and opening new accounts, visiting customers. Should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with a relatively clean driving record, adequate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and familiarity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would be a plus.

Compensation will be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abilities. Benefit package and/or green card sponsorship may be availa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mailto: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mailto: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명불허전' 김남길X김아중, '의드에서 ♥' 편견 넘어 비결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의학 드라마 장르에서의 멜로라인은 국내 시청자들이 유독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학 드라마가 멜로 장르에 빠지는 순간, 의학 드라마 장르의 매력과 전문성이 반감된다는 이유로 시청자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곤 했다. 멜로라인이 살아나게 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주인공들의 러브스토리로 귀결됐기 때문이었다. 의학 드라마에서의 멜로라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이라는 공간과 의학 드라마라는 장르에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가 돼버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온 셈이다.

'명불허전'은 허임과 최연경의 러브라인도 주된 서사이긴 했지만 주인공들의 사랑에만 집중하기 보다, 의사로서 동지 의식이나 직업에 대한 신념도 그려내며 의학 드라마 장르에서의 남녀간의 관계를 충실하게 담아냈다. 허임이 한의사로, 최연경이 현대의학을 다루는 의사로 각각 등장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통해 성숙한 의사로 성장해가는 세밀한 과정이 전제 됐기 때문에 러브라인에 대한 반감은 없었다. 비록의 슬픈 달랐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진심 속에 싹튼 서로에 대한 호감과 사랑의 감정은 비교적 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김남길과 김아중의 연기력과 케미스트리가 '명불허전'의 시청률을 견인했다. 두 사람의 코믹한 호흡부터 애절한 멜로까지, '명불허전'을 꼭 채운 케미스트리가 돋보였다.

aluemchang@news1.kr

#### 티보플레이 9월 2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황금빛 내 인생     |
| 2  | KBS | 이름 없는 여자     |
| 3  | KBS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 4  | SBS | 언니는 살아있다     |
| 5  | SBS | 달콤한 원수       |
| 6  | MBC | 돌아온 복단지      |
| 7  | MBC | 훈장 오순남       |
| 8  | MBC | 도둑놈 도둑님      |
| 9  | MBC | 밥상 차리는 남자    |
| 10 | MBC | 별별 며느리       |

#### 티보플레이 9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악마의 재능기부       |
| 2 | KBS    | 남편 갱생 프로젝트 가두리 |
| 3 | CJ E&M | 대화가 필요한 개냥     |

#### 티보플레이 금주의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내 남자의 비밀  |
| 2 | SBS    | 사랑의 온도    |
| 3 | CJ E&M | 옥수동 부부수제자 |

### '인생술집' 정소민 · 이미도 출격 이상형+신혼생활 공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정소민과 이미도가 내숭 없는 입담으로 tvN '인생술집'에 풍성한 웃음을 선사한다.

녹화 당시 정소민, 이미도는 서로의 성격을 유머러스한 것을 좋아하지만 속은 진지하고 여린 면이 있고, 취향은 여성스러운데 성격은 좀 남자 같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특별한 차별점이 있는데, 이미도는 자타공인 재미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반면 정소민은 재미 있고 싶어한다는 것. 두 사람의 다른 듯 비슷한 매력이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신혼의 깨알 재미를 쏟아내고 있는 이미도는 연하 남편의 애칭으로 '오빠'라 부른다 고백해 그 사연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정소민은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된다고 남다른 이상형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연애 성향과 심리 테스트까지 솔직한 모습으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것.

aluemchang@news1.kr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 PLAY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sup>99</sup>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sup>99</sup>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sup>99</sup>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sup>99</sup>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 TM STORY On Style Mnet O'live OCN



# 마음대로 골라본다

# \$14<sup>99</sup>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sup>99</sup>**

###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sup>99</sup>**

###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sup>99</sup>**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신영의 **세상 스케치**

61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칭찬을 아끼지 말고 풀어 놓기를...

서양 속담에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고, 듣기 좋은 말이 즐거운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칭찬보다는 흠집을 먼저 찾아내려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무엇보다도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알 일이지 않던가. 누군가 내게 칭찬으로 대해주면 괜스레 즐겁고 기쁘지 않던가 말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별 큰일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 사람을 몰아세우면 참으로 당황도 되거나 황당하지 않던가 말이다. 이렇듯 일상에서의 행복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딱히 할 말이 없을 때도 있다. 아주 일반적인 인사 외에는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상황일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럴 때 그 누구 하나라도 상큼한 칭찬의 말 하나 툭~ 하고 던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재치있고 유쾌한 사람인가 말이다. 때로는 때와 장소도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영혼 없는 칭찬을 난무한다면 조금은 다를 일이지만, 그 외의 칭찬들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특별히 죽고 살 일이 아

나라면 서로에게 기분 좋은 기억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이 아닐까 싶다. 그 삶은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다.

나역시도 <보스톤코리아>칼럼 글을 12년째 연재하고 있고 <뉴욕일보>에 10년째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니 뉴잉글랜드 보스톤 지역의 한인들이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다. <보스톤코리아> '신영의 세상 스케치'의 칼럼을 구독하며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편안한 얘기를 나눠줘서 좋으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때로 어느 분들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에 심심해하실 분들도 계시다. 중요한 것은 어찌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있으며, 또한 나의 글을 다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나 큰 욕심에서의 바람인 것이 분명하다.

독자들을 만나게 되는 곳은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한국 마켓이나 한국 식당 그리고 교회와 그 외의 단체 모임에서 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회에서 만나면 두 손잡아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K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 이 분은 10여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일이 없으시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운 장로님이시다. 때로는 글 속에 내 가정의 아픔이나 고통이 여민 얘기도 있지 않던가. 그럴 때면 언제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내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의 마음과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가 싶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줄 안다는 얘기가 있지 않던가. 특별히 자식에게는 부모의 칭찬이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자존감을 키워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해가는데 큰 몫을 하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알면서 제대로 실천하는 데는 게을렀던 부족한 엄마였음을 이 지면을 통해 고백한다. 하지만 세 아이를 다 키워놓고 깨달은 부분들은 다른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의 진심 어린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말이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눈물 글썽이고 서운해하고 그것으로도 속이 풀리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고개 돌려 빼지기도 하신다. 나를 길러주신 엄마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어깨는 아위어 너무도 작아지고 마음은 더욱이 나약해지신 어머니를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야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내 자식에게 하는 칭찬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안쓰러움이 채 가시기 전에 나도 저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칭찬은 해도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귀로 듣든 마음으로 듣든 들은 칭찬이 쌓이고 그 칭찬이 곰삭아지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머리 숙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편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며, 아내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더욱이 부모로서 자식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풀어 놓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부모에게는 정성과 진심 어린 공경이 곧 칭찬이려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친지와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아끼지 말고 푹푹 퍼주고 풀어놓아 넉넉한 칭찬이면 좋겠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머릿말 메들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엔 추석 연휴기간이다. 그런데 들려오는 한국 소식에 마음 한켠이 무겁다. 추석인데, 송편은 드셨는가?

머릿말은 서문序文이라고도 한다. 책을 펴고 보면, 머릿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요새 읽었던 책중 머릿말이다. '... 상허 이태준 선생의 고전적 노작에 내가 해제를 엮은 것은 실로 외람된 노릇이다. ... 이 책에 대한 나의 사적인 부채를 이토록 거친 말로 갚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이다.' (임형택, 문장강화 (이태준) 해제본의 머릿말). 상허尙虛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생생히 전해진다.

한국에서 제법 읽혔다는 책 호모 사피엔스 서문序文도 인상적이다. '한국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 지난 1945년 한반도 남북과 북쪽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던 기술은 정

확히 똑같았다. 하지만 오늘날 남북한의 기술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 한글판, 서문 중에서).

칠십여년 후 오늘날, 남과 북간 차이는 분명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한쪽이 다른쪽을 향해 겁박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다. 눈길이 자주 한국신문과 미국뉴스에 간다. 무슨 일이나 없기를 간절히 빈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의 서문序文이 떠올랐다.

... 옛터가 먼 병자년의 겨울을 흔들어 깨워, 나는 세계악에 짓밟힌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하였다. 그 갇힌 성 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고, 치

욕과 자존은 다르지 않았다. 말로써 정의를 다룰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 있는 동안의 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다 받아내지 못할진대, 땅 위로 뻗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리. .... 슬픔이 나를 옥죄는 동안, 서둘러 작은 이야기를 지어서 내 조국의 성에 바친다. (김훈, 남한산성 서문 중에서)

삼전도비三田渡碑가 떠오른다. 고두삼배叩頭三拜란 말도 있다. 인조仁祖는 청나라 칸汗에게 술잔을 바치고, 무릎꿇었다 했다. 세번 절하고, 아홉번을 차가운 땅바닥에 꿇었다고도 했다. 삼전도 치욕이라 말한다. 말 나온김에 한마디 더 해야겠다. 사족蛇足이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족漢族 명나라를 꺾고 세웠다. 그러니 중국은 만주족 식민지였다. 오죽했으면 한족은 관직에 오를 꿈도 접었다고 했던가. 그런데, 어느틈에 식민지 역사는 슬그머니 중국 본 역사에 편입되었다. 몽골족 식민지였던 원

나라처럼 말이다.

한국 국방장관과 외교특보사이에 일었던 논쟁기사를 읽었다. 얼핏 김상현과 최명길을 떠올렸다. 작가 김훈 말을 그대로 옮긴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쳤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 들었다. 영화에서도 말이 창궐할 것인가. 영화도 소설처럼 슬픔으로 옥죄일 것인가. 영화를 보는 관객은 조국의 운명앞에서 무참 할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수백년이 지난 오늘도 그해 병자년 춘던 겨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 안쓰러운 심정을 이처럼 거친말로 몇자 적었다. 딱할 뿐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11)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8 Hyundai Elantra SE**

Keynote Features: Electronic Parking Brake, Power Windows, Remote Keyless Entry w/ Alarm, Steering Wheel Mounted Audio/ Cruise Controls

TND, Automatic

Stock #H012027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14,080</b>	<b>0%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15,000 Rebates.....\$4,000 Prime Discount.....\$1,1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200 (lease only)

**2017 Hyundai Sonata 2.4L**

Keynote Features: Bluetooth, Sirius XM, FWD, Automatic

Stock #H012412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15,560</b>	<b>0%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2,960 Rebates.....\$5,000 Prime Discount.....\$2,0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200 (lease only)

**2017 Hyundai Elantra Eco**

Keynote Features: Heated Front Seats,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0" Display Audio System w/ 7" Touchscreen & 8 Speakers, 8.2" Mirror, Hands-Free Phone System, Proximity Key w/ Push Button Start, Hands-Free Smart Thru

TND, Automatic

Stock #H011999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16,890</b>	<b>0%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1,700 Rebates.....\$5,400 Prime Discount.....\$1,5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8 Hyundai Sonata SE**

Keynote Features: Apple CarPlay™ & Android Auto™, Integration, Bluetooth, Rear View Camera, Blind Spot Detection System w/ Rear Cross-Traffic Alert

TND, Automatic

Stock #H012440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18,940</b>	<b>0%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3,140 Rebates.....\$2,500 Prime Discount.....\$1,7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200 (lease only)

**2018 Hyundai Sonata SE**

Keynote Features: Apple CarPlay™ & Android Auto™, Integration, Bluetooth, Rear View Camera, Blind Spot Detection System w/ Rear Cross-Traffic Alert

FWD, Automatic

Stock #H012449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18,940</b>	<b>0%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3,140 Rebates.....\$2,500 Prime Discount.....\$1,7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200 (lease only)

**2017 Hyundai Tucson Sport**

Keynote Features: 17" Alloy Wheels, Chrome Upper Door Bracket, Power Mirrors w/ Heated Glass, Hands-Free Smart Thru, LED Light, Blind Spot Detection w/ Rear Cross-Traffic Alert

FWD, Automatic

Stock #H012075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21,665</b>	<b>0%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8,600 Rebates.....\$3,400 Prime Discount.....\$3,6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7 Hyundai Santa Fe Sport**

Keynote Features: Services camera, Apple CarPlay™ & Android Auto™, Bluetooth, Hands-Free Phone System, Fog Lights

FWD, Automatic

Stock #H012271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22,540</b>	<b>0.9%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30,340 Rebates.....\$4,500 Prime Discount.....\$3,3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200 (lease only)

**2017 Hyundai Santa Fe SE**

Keynote Features: Blind Spot Warning, and Rear Seating,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Vehicle Keyless Entry

FWD, Automatic

Stock #H012172

Lease	Purchase	Finance
<b>\$99/mo.</b>	<b>\$27,765</b>	<b>0% APR</b>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38,640 Rebates.....\$6,900 Prime Discount.....\$3,900	Available up to 1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 \$200 (lease only)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or 12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7.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All offers expire 10/31/2017."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별사탕만큼 사랑하는 당신

T라는 동료가 있었다. 그는 부동산 일을 20년 이상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나와는 같이 팀으로 몇 번 일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의 일하는 스타일은 어떤 요구를 원하든지, 손님들이 원하는데로 아무말 없이 계약서를 써주고 협상하는 방법이었다.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고 생각되는 사항도, 가격도, 손님이 원하는데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과의 충돌은 없었지만, 협상 성공율은 아주 낮았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결국 의뢰인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종이기에 T의 인내심과 느긋함에 존경을 표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 동료들과 회식에서 약간 취기가 오른 T가 속마음을 실토했다. “나는 사람이 싫어!” 나는 잘못 들었나 하고 되 물어야 했다. “고약한 손님이나, 치사한 거래상대를 말하는거지? 좋은 손님들도 많잖아” T는 단호히 “아니야, 사람들이 다 싫어. 이 직종에

오래 일하다보면 사람들이 다 실망스러워” 그때 느꼈다. 결국 T의 협상방식은 손님의 최대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실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무슨 일을 해도 상대를 좋아하면 일이 쉬워지고 즐거워진다. 이 진리를 나는 28여 년 전 상사와의 갈등을 통해서 깨달았다. 나와 사사건건 부딪치던 동료가 승진을 해서 나의 상사가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었다.

그때 다른 동료가 “너는 우리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다. 너는 너의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다”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해주었다. 그렇다, 나에게서는 나의 상사가 나의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서 승진, 해고, 업무평가, 전출 등 모든 결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후로는 어느 회사를 다녀도 나는 상사의 오른팔이 되려고 노력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는 표현이 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 그냥 생각만 해도 미소가 입가를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면 감히 나의 이득은 생각도 할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성취하고 만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도 안되는 부탁도, 처음부터 ‘너, 장난치니?’ 가 아니라, “알았어.” 로 답한다.

나는 나의 고객을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매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거래 하려하면, 무조건 “네”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방향도 제시해준다.

T는 인간에 대한 실망에 “마음대로 하세요 ~ 그러시던지” 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고객이 실망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을 따오세요” 라고 하면

“네 ... 그런데 현대 과학 기술로는 아직 별사탕입니다.” 라고 솔직히 말할 정도로 좋아한다. 그러면서 살며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별사탕을 보여줄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98 화랑세기花郎世紀, 7세 풍월주風月主 설화랑薛花郎(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렇게 두 진영(이문二門)으로 갈라진 화랑도는 ‘풍월주’ 와 ‘국선國仙’ 이 그들을 이끄는 우두머리였다. 풍월주 설원랑(설화랑)이 이끄는 낭도들은 향가를 즐기며 풍취있는 놀이를 즐겼으며, 또한 속진俗塵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며 호흡하며 수신하였다. 반면에 국선 문노가 이끄는 낭도들은 격검술擊劍術 연무하기를 좋아했고 호협한 기상과 웅망한 의협심이 강했다. 그래서 나라사람들은 설화랑의 화랑도들을 ‘운상인雲上人’ 이라 불렀고, 문노의 화랑도들을 ‘호국선護國仙’ 이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갈라진 화랑도에는 신분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하기도 하였다. 골품이 있는 귀족들은 설화랑이 수장으로 있는 운상인으로 많이 갔고, 평민(심지어 많은 미천한 출신의 무리도)들은 국선 문노가 수장으로 있는 호국선으로 많이 몰렸다.

이렇게 진지왕의 즉위 초인 576년 무렵에 갈라졌던 화랑도는 진지왕을 폐위시키려는 정변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사도태후의 명으로 두 무리로 갈라졌던 화랑은 미실을 원화로 복귀시키면서 다시 하나로 되었다. 이것은 ‘진지왕폐위’ 거사를 앞두고 문노의 세력이 불복할까봐 염려하여, 그 거사에 앞서 분열된 화랑도를 먼저 결속시켰던 것이다. 이에 미실이 원화가 되어 화랑의 우두

머리가 되었고, 미실의 남편 세종이 상선上仙, 문노가 아선亞仙, 설원랑과 비보랑은 좌우봉사화랑, 그리고 미실의 동생 미생은 전방봉사화랑에 임명되었다. 세종은 전임 6세 풍월주였고, 문노는 호국선화랑의 국선이었으며, 설원랑은 운상인화랑의 풍월주였다. 그리고 비보랑은 호국선의 부제였으며, 미생은 운상인의 부제였다. 이렇게 화랑의 수장과 부장들을 제 위치에 적절히 임명하여 군사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뒤 사도태후와 미실은 진지왕을 폐위시켰다. 폐위의 몇가지 이유는 지도왕후를 통해 진골정통과 가까워짐에 위기감을 느꼈고, 또한 왕으로 옹립될 당시 미실을 왕후로 맞이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정사는 돌보지않고 주색에만 빠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종과 설원랑은 문노의 지원으로 화랑을 장악하여 무력을 확보하였고, 사도태후의 오라비 노리부는 귀족집단을 장악하여 정계를 손아귀에 넣었다. 그 때가 579년 7월이었고, 죽은 동률태자의 장남 김백정을 진평왕으로 즉위시키고 노리부는 곧 상대등이 되었다.

세종世宗과 노리부弩里夫,

먼저 삼국사기를 보면, 세종과 노리부는 동일인물로 가야의 왕족이다. 금관가야의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구해왕)의 장남이다. 532년(법흥왕 19년)에 구형왕이 신라에 귀순할때 함께와서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신라조정에서 대아찬, 파진찬, 이찬 등의 벼슬을

하였다. 그리고 551년(진흥왕12년) 나제동맹으로 고구려를 공격할 때 거칠부와 함께 참전하여 평양까지 침공하였다. 그리고 죽령 이북의 10군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관상성 전투 당시 백제와의 적대관계에서 또 한번의 큰 전공을 세우면서 가야인으로서 귀화한 진골이었지만 신라조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세웠다. 또한 578년 진지왕 폐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평왕을 옹립한 후에는 상대등이 되었다. 그는 금관가야 구형왕의 장남으로 가야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망국의 왕족은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망국의 한’ 을 달래다가 귀화한지 46년 후에 드디어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재상이 되었다. 그는 그 후 10년을 더 살고 588년에 졸했다.

다음으로 화랑세기를 보면, 세종과 노리부는 동시대를 산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먼저 노리부, 노리부는 진흥왕의 왕후인 사도의 오라비이다. 만일 그들이 동부동복의 사이라면, 박영실과 옥진이 노리부의 부모이다. 노리부는 사도의 오라비라고만 나오지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고 사도왕후는 미실과 힘을 합쳐 둘째아들 금륜을 진지왕으로 등극시켰다. 그리고 백전노장 거칠부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실권은 노리부와 노동동(동)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사도태후와 미실, 그리고 세종과 설원랑 등의 화랑도들과 합세하여 주색에 빠진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진평왕을 옹립한 후 노리

부는 상대등이 되었다.

다음은 화랑세기의 세종, 세종은 6세 풍월주이다. 태종(이사부)과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초명은 의종이었고 숙명공주가 동생이다. 그리고 미실과 혼인하였다. 하지만 미실의 색공과 색사로 568년에 원화를 부활시키자 그는 경외로 다니면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미실은 진흥왕, 동률태자, 설원, 심지어 동생인 미생 등과 통정을 하였고, 572년 동률태자의 ‘개사건’ 죽음으로 인하여 그녀의 치부가 드러나자 진흥왕은 노하여 미실을 원화의 자리에서 폐하고 출궁시켰다. 동시에 세종을 불러드려 다시 풍월주로 화랑도를 이끌게 하였다. 진흥왕은 곧 미실 마저 다시 불러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은 미실의 권고로 풍월주를 설원랑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세종은 설원파(운상인)와 문노파(호국선)로 갈라진 화랑을 합쳐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일조하였고, 자신은 상선이 되어 화랑도를 장악한 후 진지왕을 폐위하고 진평왕을 옹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것이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에 기록된 세종과 노리부를 요약한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뉴/잉/글/랜드/지/역/한/인/교/회/협/의/회

2017년 연합 부흥회

#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신앙생활



**강사: 정양희목사 (부산온누리감리교회)**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15일(일)**

**말씀:** 10/13(금) 7:30PM 성령 받은 증거  
10/14(토) 7:30PM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10/15(일) 6:30PM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시간: 금/토요일 (7시 30분), 주일 (6시 30분)**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나사렛사립교회, 내슈아인마을교회, 뉴햄프셔감리교회, 뉴햄프셔연합교회,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 로드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로드아일랜드중앙연합교회, 무지개연합감리교회, 밀양교회, 보스턴연합감리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보스턴감리교회, 보스턴 조이풀교회, 보스턴불우부흥교회, 보스턴 다짐교회, 웨스모우드연합교회, 보스턴서부장로교회, 보스턴성결교회, 보스턴 안음교회, 보스턴소망교회, 보스턴시온성교회, 보스턴제일교회, 보스턴주님의교회, 보스턴중앙교회, 보스턴필그림교회, 보스턴연합교회, 보스턴한인연합교회, 북부보스턴연합감리교회, 비전교회, 새빛교회, 생명의말씀교회, 성요한연합감리교회, 순복음보스톤교회,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아름다운교회, 만다음연합감리교회, 열방교회, 우스티한인연합감리교회, 워싱턴포터교회, 웰슬리연합교회, 은혜전교회, 임애누연합교회, 율곡감리교회, 지구촌빙주교회,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권지영성령교회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 '당신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2)?'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불륜을 '두번째 사춘기의 풋풋하고 감성적인 사랑'이라고 주장을 해도 불륜의 끝에서 겪어야 하는 처절한 고통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계약이 엇갈린 관계인 불륜의 관계는 잘못 채워지는 단추와 같은 관계이다.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를 바로 고치지 않고 계속 단추를 채우다보면 옷깃의 끝은 결국 어긋나고 만다. 아무리 불륜의 사랑이 진실하였다고 해도 그 관계가 표면에 드러나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고통 속에 빠진다. 잘못 끼여진 단추를 제대로 맞추려면 다 풀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데 그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 유명한 영화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의 불륜 스캔들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잘나가던 여배우 김민희는 여론의 질타로 은둔생활을 하며 자신이 이루워놓은 영화배우로서의 생애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내 사랑만큼은 특별하다는 블랙 판타지 속 그녀의 나르시시틱한 사랑이 주는 맛가는 흑독하다 못해 처절하다. 그녀는 자신의 고독과 아픔을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독백한다. "괴물이 되어 가는 것 같아"라고. 또한 박종화시인의 '감나무' 시로 이 영화는 유부남 감독과의 불륜이 끝난 후 처절하게 겪어가는 아픔을 표현하려 한다. '벗어야 하리라. 벗어야 하리라. 벗어 던져야 하리라. 꼭 찬 그리움도 훌훌 씻어버려야 하리라. 만나지 못해 발동동, 만나서 더욱 애달픈 아픔도, 미련없이 잊어야 하리라. 특! 벗어 던져야 하리라.'

불륜의 끝자락에서 그들만큼, 혹은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 한 드라마 대사는 배반을 당한 부인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해준다(김수현의 '내남자의 여자', 2007). 자신의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착한 부인 지수는 오열한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너무나 무너져. 아름답게 살고 싶었는데, 착하고 이쁘게 나이먹으면서... 곱게

늘어.. 순하게 죽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심장이 필요하다면 내꺼 떼어주고 간이 필요하다면 간 한쪽 떼어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모두가 싫증나게 하는 사람인가봐." 결국 이 드라마의 부부는 이혼을 하며 관계를 종료했다. 하지만 많은 커플들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기를 기원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물어 볼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피 철철 흐르는 발등으로 어떻게 다시 걸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느냐며 항의를 할 수도 있다.

지난번 칼럼의 캐서린과 조우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며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조우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일을 갔다가 고등학교 시절 씬을 탔던 첫 여친을 만났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공을 하고 당당한 그녀를 보면서 옛 시절의 호감이 다시 느껴졌다. 그러면서 왠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젊어지는 생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동창회를 끝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옛 여친의 이 메일 주소를 물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옛 여친과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그러면서 그녀와의 대화시간에 대한 욕망(Desire)은 더욱 커져갔다. 결혼 생활 중 단 한번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만큼 조우는 일부일처제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옛 여친과의 대화는 그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망,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망,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고 그녀를 절대 소유해서도 안되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와의 대화를 더욱 갈망하게 했다. 자신의 바쁜 일정때문에 억지로 시간을 내야했고 철저히 비밀로 부쳐야 하는 죄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대화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 그녀와의 대화가 주는 짜릿한

매력 때문이었다. 단 한번도 성적인 대화를 나눈적이 없었고 자신들의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 생의 열정을 주고 받았지만 그녀를 생각하면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강렬하고 황홀한 전율이 느껴졌다. 그렇게 몇 년간 조우는 캐서린 몰래 자신의 은밀한 옛 여친과의 대화를 탐닉했다.

그러다가 결국 부인인 캐서린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는 전혀 무방비의 상태에서 부인의 추궁을 받았다. 위기에 몰린 조우는 자신의 은밀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때 캐서린은 자신의 옛여친에게 관계를 끝내자는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과 집을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조우는 캐서린 앞에서 옛 여친에게 그녀의 집착에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왔다고,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 자신의 옛여친을 자신의 '감정적인 불륜'의 원인이라고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철칙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캐서린과 조우는 필자를 찾았고 테라피 중 조우는 캐서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자신이 나누었던 은밀한 감정적 불륜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몇 년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더라도 자신은 옛 여친과의 은밀한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의 솔직한 감정을 캐서린이 키플 테라피세션에 불참했을 때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조우의 이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우는 자신의 몇 년간의 감정적 불륜이 발각되자 자신의 감정의 불륜을 끝내고 자신의 부인 캐서린을 안심시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캐서린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신이 아직도 옛 여친과의 짜릿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옛 여친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비겁한 문자를 보낸 이후로 침묵했다. 자신이 너무 힘들어 때때로 옛 여친이 몰래 자신에

게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여친과 다시하고픈 욕구를 억제해야하는 고통이 조우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의 옛 여친과 나누었던 비밀스런 관계의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마약중독자가 약물치료 과정에서 금단현상이 주는 고통을 지나가야하는 것처럼 조우는 마법같은 그 황홀했던 전율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다. 조우의 갈등을 치료하면서 그는 캐서린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자 캐서린은 조우와의 첫번째 관계의 유리병이 산산조각이 났음을 받아들였다. 깨어진 유리병을 본드로 붙여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깨어진 유리병을 버리고 새로운 유리병의 두번째 관계를 향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캐서린과 조우는 새로운 열린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옛 여친과의 관계와 자신을 비교하는 질문을 자제하면서 불륜의 피해자가 아닌 불륜의 생존자로 거듭났다. 조우의 욕망이 준 마력을 벗어나며 조우가 준 배신의 상처를 극복하며 캐서린과 조우는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였다.

테드 톱의 Esther Perel의 'Rethinking Infidelity'의 마지막 톱으로 필자의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

'오늘날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두세번의 연애나 결혼을 하게될 것이고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을 동일한 사람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첫번째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당신의 두번째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Today in the West, most of us are going to have two or three relationships or marriages, and some of us are going to do it with the same person. Your first marriage is over. Would you like to create a second one together?)'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99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On 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보스톤협의회출범회의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일시 : 2017년 10월 19일 (목), 오후 6:00~9:00  
장소 : CROWNE PLAZA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회장 윤미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06) 평생연금과 만병통치약

어뉴이티는 평생 보장연금으로 세금이 유예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기에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도 절대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투자하는데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뉴이티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보장한다는 유혹과 숨어있는 속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뉴이티는 보험회사가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보험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므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뉴이티라는 보험성 금융상품을 만든 후 서브어카운트(Sub-Account)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월 스트리트 재정신문에 의하면 어뉴이티의 평균 수수료(Commission)는 8%라고 말합니다. 어뉴이티가 매우 비싼 금융상품이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월 스트리

트에 나온 기사(New Rule's Nest Target: Annuities, 2-9-2016, WSJ)를 인용했습니다.

어뉴이티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일부 보험인은 자기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왜 이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보험인이나 재정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어뉴이티를 팔았기에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수익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더(Rider) 경비 등을 포함해서 3% 이상을 매년 부과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하면 수수료 8%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부과되는 3%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 투자가 결국에는 뮤추얼 펀드라면 어뉴이티를 통해서 비싼 수수료와 경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하면 이 모든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보험회사가 연금 7% 보장을 언급하면 일반 투자자는 이자로 7%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금 7%는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뉴이티의 다른 단점은 연금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연금 액수는 20년 후에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은퇴하기 전 직장에서 투자했던 401k, 403b, TSP 등의 은퇴자금을 어뉴이티에 롤오버(Rollover)하면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이자로 개인연금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있던 은퇴자금은 이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을 유예하기 위해서 어뉴이티로 옮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뉴이티의 가장 큰 단점은 어뉴이티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Annuitization)한 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뉴이티에 투자된 모든 돈이 사라진다는 것입

니다. 이점을 투자자가 언급하면 보험회사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남은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연금 수령자가 받는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보장(Guarantee)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 하늘나라도 간다는 것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보장이 없습니다. 어뉴이티에서 말하는 원금 보장, 평생 생활비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보장'이란 말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며 정신없이 산 이민 일 세대,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원금을 보장하며 주식시장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어뉴이티를 '만병통치약' 처럼 선전합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과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양도소득세 (2)

## - 한국의 양도소득세

이번주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합니다.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급여, 이자,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미국은 양도소득도 Form 1040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함).

**한국은 세법에 열거된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냄**

한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아래와 같이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 ① 토지, 건물,
-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④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
- ⑤ 파생상품

위의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상장주식'은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 20억원 이상, 코넥스: 지

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가 양도하거나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소매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한편, 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자산의 양도일 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에게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간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하는데, 이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10% ~ 30%, 주택인 경우 24% ~ 80%)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양도 부동산,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1세대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됨) 1주택을 말합니다. 이 때 2년의 보유기간이란 한국의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말하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한국의 거주자로 1년 거주하여 총 3년을 보유했다라도 거주자 상태에서는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및 ④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및 출자지분 중 '상장주식'은 양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

식의 발행주식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다만, 100분의 25미만 소유한 경우도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됨).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과세됩니다.

**한미조세조약상의 규정**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한국의 세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조약에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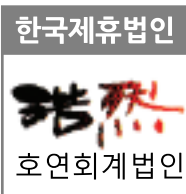
예를 들어 주식을 살펴보면,

한국의 세법은 주식의 양도소득을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16조는 당해연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원천지국(즉,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에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의 세법도 한국에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 소식 (2017년 10월 첫째주)

#### ● H-1B 급행신청

이민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10월 3일부터 중단됐던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을 재개합니다.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4월 수십만 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을 예상한 이민국은 지난 3월 모든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중단했었습니다. 신청서 심사가 조금씩 진전된 지난 8월 이민국은 대학관련 직종과 비영리 연구단체로 부터 신청된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했고 이번주 모든 H-1B 신청서 (연장신청 포함)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새로운 노동허가 신청서 (EAD, Form I-765)

한시적인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허가 신청서 또는 OPT 신청서(Form I-765)가 최근 개정됐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는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간의 정보공유 협약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Social Security Number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카드 발급 후 사회보장국에 따로 방문해서 social security 번호를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노동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2주 안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 ● 북한제재 및 관련자 제재

지난 9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와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의 미국 입국과 미국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Executive Order 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미 미국에 있는 어떠한 재산 중 이 재산이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 북한의 수출입에 관련되거나, 북한 정부 재정에 이익을 주거나, 재정적/기술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 재산은 즉시 동결되며 이 재산을 미국 밖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미국 내에서도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는 펀드 중 어느 단계든 북한국적자가 관련된 펀드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번 Executive Order 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해당하

는 재산이나 펀드에 관련된 자로 판명된 사람은 영주권자를 포함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관련된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Executive Order 의 법해석이 광범위해 질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이나 자선의 목적 또는 가족상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시거나 관련된 분들도 이번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한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 케이스도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인가?” 라는 문의에 대해 이민국 담당자는 2017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6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의 경우 우선 진행을 할 예정이며 일부를 선택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6일 이후에 접수된 취업 1순위, 2순위, 3순위는 예고했던 대로 모두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

다. 취업 1순위, 2순위, 3순위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고용주가 없는 NIWD 인터뷰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이민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인터뷰의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케이스 전반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점이었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 담당자는 이민국 지역 오피스 직원들의 업무에서 이번에 추가된 인터뷰 업무는 약 17%의 시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초청 케이스나 시민권 인터뷰 케이스가 지연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매 해 배정된 취업 영주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자체의 지연은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뉴욕, 휴스턴, 시카고, 달라스, 아틀란타, 로스앤젤레스 등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 이민국 업무 양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미 지연이 심각한 뉴저지와 뉴욕지역의 가족 초청, 시민권 신청, 그리고 취업 이민 케이스 지원자들은 어쩔 수 없는 지연을 예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취업 영주권자에 대한 인터뷰는 10월 2일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민국은 30일 정도 전에 인터뷰 일정을 알리는 안내문 (Interview notice)을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고객들도 해당 안내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인터뷰 안내문은 기존의 이민국 인터뷰 안내문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어떤 질문이 초점이 될지에 대해 가능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취업 영주권자의 인터뷰 안내문에 가족초청에서 요구하는 재정 보증 서류 (I-864)를 지참하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민 변호사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 다.

우선, 이민국 담당자는 인터뷰 안내문이 취업 영주권자의 인터뷰를 위해 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가족 초청 인터뷰 안내문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 재정 보증 서류와 같이 취업 영주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서류는 인터뷰에 가지고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안내문 양식이 곧 준비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이민국 내부에서도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과정 중에도 체계

적인 절차가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서 초점이 될 질문들에 대한 문의에 이민국 담당자는 인터뷰의 목적은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는지 그리고 취업 제안을 받은 자리에 일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영주권 지원자는 자신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학위나 경력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한지와 더불어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의 취업 제안이 아직도 유효한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F-1 학생 신분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그 사유와 그 기간 동안에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번 컬럼에 이어 다음 컬럼에서도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 이민국 담당자와의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YouTube Song Law Fir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SONGLAWFIRM**



뉴저지 본사 소속 시니어 변호사

songlawfirm.co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임,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손해 | 상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9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7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 연매상 \$160,000 소유자 은퇴(32년)

보스톤 북쪽 드랍+우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은퇴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톤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Core Services

### 1. Saturday Lock-In

SAT1 / SSAT class  
Essay Writing  
Practice tests  
Teachers' evaluation



### 2. Admission Process

Secondary School / College  
School lists  
Application form  
Essay instruction / Revision  
School tour and Interview

### 3. Guardianship Service

Academic cour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visit and meeting  
Test Plans / Registration  
Summer activities / Enrollment

## 2017 Thanksgiving Specials

- SAT 1/SSAT Tests Prep 그룹 수업
- SAT 2 Subject Tests Prep 개인 수업
- Contest Prep 개인 수업
- 학교 교과목 수업 보강

### Grade

SSAT: 8, 9학년  
SAT: 10, 11학년  
기타 수업: All graders available

### Date & Sessions

11월 18일(토) - 11월 26일(일)  
(23일 Thanksgiving 당일은 휴강)  
Session 중간 등록 가능

### Tuition and Fees

수업 종류와 시간에 따라 차등  
담당자 문의

### Daily Schedule

09:30am-11:30am	SAT1 / SSAT수업(Reading Comprehension) 철저한 밀착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12:00pm-01:00pm	점심 식사 영양가 있는 식단의 구성으로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01:00pm-03:00pm	SAT1 / SSAT수업(Writing / Verbal) 철저한 밀착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03:30pm-05:30pm	Practice Test(Reading, Writing, Verbal) 선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저희 보스톤 교육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준비된 교재와 강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SAT1 / SSAT 및 각 중 Subject Tests에 대한 점검과 계획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